同窓會 指標

•參與
•協力
•榮光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大學校
同窓會報

發行人 崔 主 鎬
編輯人 李 聖 秀
印刷人 韓 鍾 愚

發 行 所
서울大學校 同窓會
郵便番号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南 桃花洞 18-2
電話 : 702-2233～5, 717-8536～7

●銀行지로番号 : 7500875
●對替口座서울 : 010017-31-0621565

三星그룹서 湖巖生活館 세워

4천여평의 住居施設 起工 : 지난 3월4일 敎授아파트 건너편에 세워질 地下1층, 地上5층의 호암생활관의 기공식이 있었다. 母校 趙完圭총장, 三星그룹 李健熙會長, 本會 李聖秀 상임부회장이 참석한 호암생활관(사진·조감도) 기공식은 大學院生, 母校교수 및 교환교수를 위한 주거시설이 마련되며 건축비 전액은 三星그룹에서 母校에 희사.

冠岳春秋

5月의 理想·世界的인 名門大

5월!。「피에데는」는 그 명랑함을 이렇게 노래하였다。「얼마나 명랑한가/ 자연의 빛/해는 반짝이고/들은 웃는다/꽃과 꽃들/가지에 피어나고/무수한 노래소리/나무 그늘에 간들찼다// 용솟음쳐 오르는/기쁨, 이 환희/오오 땀이여 태양이여/행복이여 희망이여//…(중략)// 그대 명랑히 축복한다/생명이 뛰는 들을!/꽃이 그득 핀/충만된 세계를//…。

호사스런 꽃에 어울려 5월엔 신선한 綠陰이 천지에 펼쳐지기도 한다。그래서 季節의 여왕·색깔의 여왕을 함께 대하며 모든 면에서 生動하는 正體를 뚜렷하게 실감하게 된다。달콤한 꽃향기에만 취하기에는 새 열매를 잉태한 푸른 生命의 도전이 너무나도 생생하고, 밝고 순한 태양결 아래 순이 자라고 나래를 펼치는 가지들의 행복은 싱그럽기만 하다。

푸르게 깔려드는 山野의 그변화속에서 우리 모두는 上向하려는 만물의 뜻을 읽을 수 있다。잔잔한 감상에서 생기어린 意志를 확인하게 되고, 가슴과 혈관속에 고동치는 理想과 소망의실현을 강렬하게 추구하기 마련이다。5월刷新의 출동이오, 攝理라고나 할까。

躍動하는 5월의 이 活氣를타며, 우리들의 母校 또한 希望과 慶事의 새 記錄·새 앨범을 지금 한창 엮어내고 있다。三星그룹의 기증으로 지난 3월4일起工式을 올린「湖巖生活館」의 진척은 그 첫 목록에 속한다。創業主 故 李秉喆회장에 대한 추모사업의 일환으로 冠岳캠퍼스내에 세워지는 이 생활관은 총공사비 35억을 투입, 4천여평의 넓직한 垈地에다 회관·학생기숙사·교수숙사등 연건평 2천7백평의 3개동 건물을 신속하려는 것이다。

設計대로 올가을 11월에 완공되면, 會館棟(757평·지하1층 지상2층)에는 국제회의실 소회의실 슈퍼마켈 식당 사무실 등이 차려진다。지상5층 건물인 학생숙사동(1156평)과 교수숙사동(756평)은 모두 최신식의 생활시설을 고루갖춘 95세대분의 아파트와 45개실의 숙사로 채워진다。그중 무주택 기혼大學院生용 70세대의 아파트는 국내최초의 학생복지주택시설이고, 25세대분의 교수아파트와 外人교수숙사 15세대분을 마련케 되는 것도 획기적인 캠퍼스 생활 환경의 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뜻이 풀리는 天地의 祝福을 받으며 진행된 이른 봄 3월現場의 그起工式典에는 三星그룹「35억원의 喜捨」정신과 우리 母校발전의 뜻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感動으로 그득 찼었다。趙完圭 모교총장과 李聖秀 동창회상임부회장이 李健熙 三星그룹회장과 함께 工程의 첫삽을 들었다。그것은 분명히 光彩의 한 현장이자 이 나라 敎育최고의 殿堂을 영원히 빛내려는 烽火의 한 장면이기도 했다。비록 현장에 참여는 못했지만, 우리 會員 모두의 소리없는 기쁨과 祝意도 추가로 그에어울렸을 것이다。

『비로소 이자리를 빌어 저희들의 조그마한 誠意를 표한다』면서 그룹代表 李健熙회장은『부존자원이 없고 시련·역경이 거듭되는 受難을 극복, 이제先進國의 문턱을 바라보게 된』오늘의國運이 敎育의 힘·人材의 힘 때문이었음을 지적하였다。『4반세기에 걸친 三星의 성장 또한 우수한 두뇌와 정직성 도덕을 겸비한 수많은 젊음들의 힘』에 의한 것이었고 그런 人材 양성의 본산이자 국내최고의 교육기관이 바로 서울大學校라는 요지의 인사를 하였다。

사실 그렇다。우리 母校는 나라 최고급인력·인재의 발이다。이 샛별같은 英才를 길러서 우리사회를 전진시키는 새地平이며 銀河帶인 것이다。푸른 앞날을 祝願하는 篤志家들의 精誠과 寄與는 그래서 근래 세차게 물밀려들고 있다。湖巖생활관에 이어그 나흘 뒤에는 韓國電力(사장 安秉華 文理大동문)이 창립100주년기념사업으로 건립·기증하는 基礎電力工學공동연구소의 기공식이 또한 캠퍼스내 제38동학사 뒷터에서 있었다。아직은 지반공사단계이지만 총공사비 48억원을 함께 투입, 90년말까지 完成예정이다。

그 소요자금 모두를 韓電측이 부담한다。새 건물에 앞으로 비치될 高價의 첨단 기자재를 공동사용하여 기존 한전 연구소들의 개발연구 응용연구와 함께기초적력공학연구에 박차를 가하므로 이 분야 大學院교육의 질적 향상은 물론 그 수준격상에 새 기축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그밖에도 작년 가을 崔鍾賢 韓京그룹會長의 「40억원快擧」으로 진행중인「鮮京경영관」시공과 예산관계로 한때 중단되었던 博物館(총건평 1868평) 신축재공사가 매우 순조롭고, 年來의 숙제이던 奎章閣完整작업 또한 이미 마무리단계로 진입하였다。모두가 5월 香薰과 新綠속에 나부끼는 光明의 旗幅이자 새로운 進行美일시 분명하다。

生動感 넘치는 이 現象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母校 서울大學이 바로 이 땅 푸른 生命의 産地며 씨앗이라는 심정적인 명예와 긍지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또 그 延長線上에서 이제는 世界속의 名門大學·세계속의 서울大人으로서 우리의 희망, 우리의 힘, 우리의 빛을 더욱 떨치고 나서야할 意氣가 새로워 지기도 한다。

前身일부·特殊大學院 履修者

常任理事會에 위임 처리

名簿編纂委員會 2차 회의

配列順 母校 現行원칙 적용키로

本會는 지난 3월30일 會員名簿編纂委員會 2차 회의를 열고 명부제작계획, 보고및 前身에 대한 회원의 資格부여문제, 명부편찬방법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낮 12시 가든호텔에서 오찬을 하며 진행된 회의는 李聖秀상임부회장의 진행으로 한건 한건, 의견 개진에 따라 통합된 의견을 추출, 결론을 보는 식으로 진행됐으며 여기에서 결의된 사항은 동창회 회칙규정상 常任理事會에 상정, 최종 의결하도록 위임을 받고 회의를 종결하였다.

이날 토의를 거친 안건은 다음과 같다.

△同門配列순서는 年度別, 大學別, 卒業證書番號순에 따라 등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후기졸업 동문은 해당연도의 前期卒業 동문의 끝에 넣는다.

△前身(1945년 이전 졸업) 동문중 創氏改名이 지금껏 정리되어 있지 않은 동문은 각 단과대학 동창회에서 책임지고 本名을 찾아 넣도록 하고, 創氏名으로는 등재하지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外國人 동문의 人名은 원음에 좇아 읽되 한자권인 日本·台灣등지의 동문은 그대로 한자표기로 한다.

△文理大·醫大·齒大 예과 수료자중 本科 미진학 동문은 수료자로 인정한다.

△準會員(중도탈락자)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모교 學籍簿의 근거에 따르되, 각 단과대학 동창회 명부에 등재된 인원과 차이가 많으므로 常任理事會 결정사항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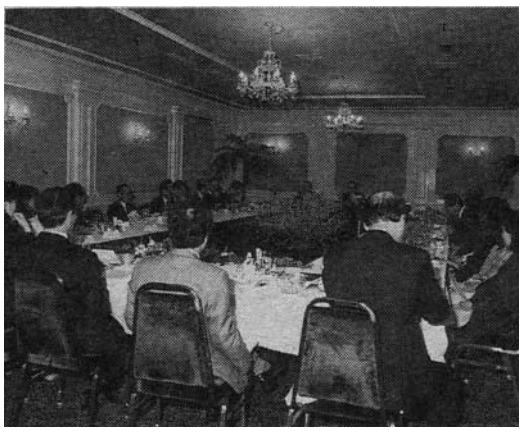
△단과대학의 등재순은 모교에서 시행하는 순서에 따른다.

△각 단과대학의 科順은 학적부 기재순에 따른다.

△醫大부속 高等看護學校 졸업자(49~50년, 61년도)의 동문자격 문제에서 專門部 성격의 졸업자(3년제)는 동문으로 인정하되, 中學 출신자가 입학한 看護學校 출신자는 동문으로 인정치 않는다.

△師大 中等敎員養成所 출신자는 동문으로 인정치 않는다.

△기타 세부사항은 77年版 회원명부에 준한다.



◇명부 편찬회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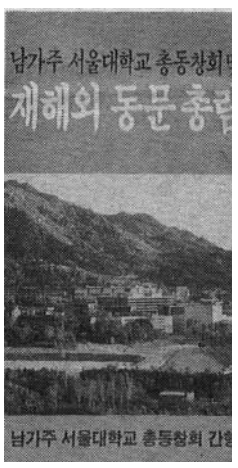
새명부 발간 順調

學籍資料入力완료

새 名簿發刊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명부편찬실에서 밝힌바에 따르면 4월20일 현재 전회원의 學籍資料가 컴퓨터에 입력이 거의 완료되어 1차 校正중이라는 것. 校正이 완료되면 아르바이트생을 동원, 본격적인 회원 소재파악에 나선다.

회원 소재파악은 오는 7월말까지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동문들은 이 기간내에 정확한 소재를 명부편찬실로 알려줘야 새로 발간되는 명부에 등재되게 된다.



「在海外同門 총람」발간

校木(나느티무)20그루 植樹

母校 造景支援 일환…循環路辺에

본회에서는 지난 4월7일 冠岳캠퍼스의 造景지원 계획에 따라 校木인 느티나무 20그루(싯가 2백50만원)를 파워플랜트 윗쪽 순환도로변에 식수했다.

동창회에서는 모교가 관악캠퍼스로 이전한후 황량했던 캠퍼스의 景觀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뜻에서 모교에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지난 74년이래 꾸준히 식수행사를 해오고 있다.

금년까지 관악캠퍼스에 투입된 식수액은 약 3천여만원에 이른다.

이날 식수행사는 오전 10시30분 동창회측에서 崔主鎬회장, 李聖秀상임부회장, 吳寅泳사무처장이 그리고 모교측에서 趙完圭총장, 金榮國부총장을 비롯한 본부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연도별 식수현황은 다음과 같다.

△74년=목련5, 향나무8그루 △75년=목백일홍2, 등나무 4그루 △76년~78년 매년 서부해당화 1백그루씩 총 3백17그루 △80년=프라타나스3그루 △81년=월계수3그루 △82년=朱木 2그루 △83년=단풍나무 2그루 △84년=은행나무5, 월계수 1그루 △85년=느티나무 2그루 △86년=느티나무 2그루 △87년=느티나무 6그루 △88년=느티나무 20그루 △89년=느티나무 20그루.

◇기념식수 광경

올해 事業計劃 승인

두 同窓會 定總…任員陣 대부분 留任

看護學科

看護學科동창회(회장 楊恩淑)에서는 지난 2월28일 오후1시부터 서울대학교병원 B강당에서 제3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동문 약 1백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간호학과 30주년 기념행사에 관한건 및 89년도 사업계획·예산승인에 이어 서문자(67년卒)·박성애(70년卒) 두 동문의 학위논문 발표회가 있었다.

이어 6시부터는 「하림간」에서 박사학위 취득 축하연을 가졌다.

獸醫大

獸醫大동창회(회장 全東龍)는 지난 4월1일 오후 3시30분 63빌딩 별관3층 체리룸에서 금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기만료된 全東龍회장을 재추대 유임시켰다.

회원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馬点述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는 全東龍회장의 인사, 權宗國수의대학장의 축사에 이어 이같이 결의하고 기타 부회장및 임원진에 대해서도 전원 유임시켰다.

이어 부의안건 심의에서는 88년도의 결산과 89년도의 사업계획및 예산을 집행부의 원안대로 승인하고 기타 모교이전계획및 교육년한의 연장(6년)에 대해서는 이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전동문이 적극 성원키로 했다.

行政大院

총회 上程議案 定期이사회

—29차

行政大學院동창회(회장 兪尙根)에서는 지난 3월28일 오후7시30분 롯데호텔 36층 버클리룸에서 제29차 定期理事會를 개최하고 88년도의 事業보고및 決算案을 승인했다.

이어 △회원명부 발간 △行政과 정책논총 발간 △장학금 지급△모교 院友會 주관 행정과 정책연구지 발간지원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89년도의 事業計劃과 予算案을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승인하고 88년도의 결산과 함께 定總에 회부키로 했다.

또한 會長團의 추천과 常任理事, 理事의 보선, 모교 개원30주년 기념행사의 지원에 관한 건도 통과시켰다.

南加州

본회 南加州지부(회장 박상길)에서는 금년초에 남가주지역은 물론, 세계 각처에 산재해 있는 우리 동문들의 현황을 파악하여 「在海外同門 총람」을 펴냈다.

冠岳캠퍼스의 전경이 표지에 실려있는 이 총람은 南加州지역, 美洲지역, 그리고 各國지역(카나다 브라질 일본등 20여개국)의 순으로 편집되어 있다.

박상길회장은 명부발간사에서 「남가주지부회원들의 주소록을 만들면서 남가주이외의 美洲 각지역의 동문들, 그리고 멀리 각국에 산재한 우리 동문들이 얼마나, 또 어떻게 건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싶어서 이번 주소록의 범위를 재외국동문 총람으로 넓혀보았다」고 총람 발간 의의를 설명한후 「비록 미흡하나마 시작을 했으니 이 사업이 계승 발전되어 전세계의 우리 서울대학 동문들의 주소가 보다 정확하게 등재되어 일체감을 더욱 견고히 하고 상호간에 다각도로 협조하는 계기가 되기를 갈망한다」고 말했다.

4×6배판 크기의 이 총람에는 약 5천여명의 해외 거주 동문이 등재되어 있다.

서울大學校의 뿌리 ⑪

人文大學 〈下〉

엘리트意識과 個性의 特出함 傳統으로 이어져

—韓基彦
(49년 師大卒·母校교수)

「국어학자로서 잊을수 없는 분으로는 一蓑 方鍾鉉교수(1905~1952)를 들어야 되겠다. 西隱 金基錫교수(1905~1974)와는 五山中學校 동기동창이다. 一蓑가 세상을 떠날때 누구보다도 애통해하며 충격을 받은이도 西隱이었다. 西隱이 一蓑의 永眠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애석해 한 것은 그의 이룩해 놓은 방대하고 치밀한 학적 성과가 上梓되지 못한 채 다만 資料로만 남게 된데 있었다. 다행히 一蓑의 학문정신은 그의 애제자에 의하여 아름답게 꽃피어가고 있으니 그만큼 애통함도 덜어지라고 본다.

一蓑의 학문세계에 대하여 李基文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선생님은 書齋를 누구보다도 사랑했지만, 거기에 박혀 있지만 않고 널리 三千里 방방곡곡을 직접 답사하면서 方言, 民謠, 民俗 등을 수집하였다. 鄕土文化에 대한 선생님의 사랑은 멀리 濟州島 남단의 加波島, 東海의 獨島에까지 발자국을 남기게 하였다』고 하였고, 一蓑文庫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선생님은 古書收藏家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지금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一蓑文庫에는 선생님이 수집한 우리나라 고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중에는 천하의 孤本, 稀覯書가 여럿 있다. 그러나 선생님은 好事家로서의 古書蒐集家들과는 본질적으로 달랐음을 여기서 분명히 말해둘 필요가 있다. 선생님은 스스로의 학문을 위하여 이 책들을 모았던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一蓑의 업적인 「古語材料辭典」은 國語史연구의 주춧돌로 평가되고 있으며 출간 못한 方言辭典은 국어학에 큰 손실이었음이 말하여지고 있다.

『寬人大度한 人品의 소유자로 말하여지는 一蓑의 인간세계는 그의 제자들에 의하여 오늘도 人文大學의 學風으로 이어지고 숨쉬어지고 있다고 나는 본다.

역사학 분야에서는 斗溪 李丙燾박사와 아울러 東濱 선생과 惠庵선생 두 분을 말해야 되겠다.

東濱 金庠基박사는 동양사 및 국사연구에 큰 업적을 남기신 우리나라 석학 중의 한 분이시다. 그의 가르침을 초기에 받은 제자인 全海宗박사(한림대교수)는 東濱의 학문적자세는 「근엄하고 강직」하였다고 하면서 동시에 「인정 넘치고 자상한 사랑을 겸비하셨던 역사학자」였다고 회상하고 있다. 더욱이 「항상 독창적인 연구를 강조」한 점이 학생시절 당시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음을 술회하고 있다.

그가 東濱에 대하여 기술한 바 잊지못할 일들 한두 가지를 인용해 보면다음과 같다.

첫째는 해방후 처음 강의를 들었을 때의 인상에 관해서이다.

『처음 선생의 강의를 들을 때에 우리는 감탄과 함께 당혹을 금할 수 없었다. 漢學 특히 중국의 고語學은 특히 중국의 전에 대한 해박한 조예는 우리 凡庸들을 매혹하기에 남음이 있었다. 결코 능변은 아니셨다. 그러나 차분히 조리있게 史實을 추구하여 논리를 전개하시며, 그 고증의 방법에는 일호의 빈틈도 찾기 어려웠다. 과연 호남의 석학 良齋田愚의 학풍을 이어받은 분이라고 생각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항상 독창적인 연구를 강조하셨다는 대목에 관해서이다. 즉, 『선생은 학문에 있어서 모방을 꺼려하셨고 史學硏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셨다. 논문에도 독창적인 면이 있어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다』는 것이다.

셋째는 東濱의 대학 초기 강의와 학적 업적에 관해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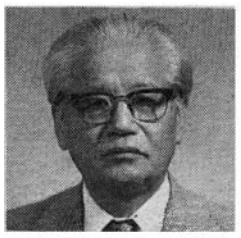
『강의는 당신의 연구의 결과며 남의 학설을 비판없이 그대로 옮기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리하여 학부나 대학원에서의 講義案은 거의 그대로 논문으로 발표되기도 하였다. 고대사의 강의를 정리하여 출판한 것이 「中國古代史綱」이며, 또 「古代中國의 末子相續」, 「五百年玉者興說」, 「太早傳說」등의 논문들은 강의안에 약간 가필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1974년에 서울대 출판부에서 간행된 「東方史論叢」은 그 모두가 평소 강의하셨던 것이 논문으로 영글은 귀중한 소산들이라는 것이다.

한편, 「서울대학교 20년사」의 편찬위원장으로 그후의 서울대학교사 편찬 사업에 굵은 선을 그어 놓은 惠庵 柳洪烈박사는 지금도 건재하시다.

◇方鍾鉉교수

◇金庠基교수

◇柳洪烈교수



◇李駿河교수

말할 것도 없이 惠庵史學은 한국문화사를 정립한 분이요 天主敎會史에 있어서 그의 박사학위 논문과 더불어 빛나고 있다. 文理大 산악회 리더였고, 보직면에서도 예과부장을 비롯하여 교양학부장, 교무처장, 총장직무대리 등을 역임하였고, 史學會, 震檀學會를 이끌어 온 원로학자임은 물론이거니와 학술원 원로회원이요 三一文化賞, 학술원상 등을 수상한바 있다. 나 역시 학생시절에 선생님의 강의를 여러 강좌들에서 받았고 각별한 사랑을 받지 않을수 없었음을 밝히지 않을 것 같다. 더욱이 惠庵의 초기 논문들인 「麗末鮮初의 私學」, 「朝鮮祠廟發生考察」, 「朝鮮에있어서의 書院의 成立」, 「朝鮮에있어서의 鄕約의 成立」 등은 강의와는 별도로 개별적으로 찾아 읽은 것이었으나, 오늘날 점차 활기를 띄우고 있는 韓國敎育史硏究分野에 있어서는 학자적 입장에서 보아도 초기 연구요 진정 이 분야의 개척자이심을 알게 하는 귀중한 업적들이라 하겠다.

惠庵의 인품과 학문에 대해서 그의 제자 韓榮國박사(인하대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나라를 찾아야 한다」는 家訓 속에서 자랐다고 하신다. 고려 이래로 巨族인 文化 柳氏의 후손이어서 남달리 家門에 대한 自負가 컸고, 그것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긍지로 확산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었다. 그래서 長湍 鄕里에서 보통학교를 마치신 선생님은 서울로의 진학을 결심하게 되셨고, 그결과 第一高普를 거쳐 경성제대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우리나라 思想史를 연구할 뜻을 세우셨다고 하신다.』라고 그의 가문과 학문 연구의 방향성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惠庵의 人品에 대해서는 古稀기념 논문집 봉정식에서 있었던 斗溪 李丙燾박사의 축사가 인용되고 있다. 그내용인즉, 『惠庵이야말로 인생의 五福, 즉 壽·富·康寧·多子多孫 등을 고루 갖춘 행복한 분』이라는 것이요, 거기에 하나 더 福을 보탤수 있다는 것인즉 『사랑하는, 내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다는 福』을 지니고 계신 점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다복한 가정을 가지고 계시는 惠庵의 학문세계로 말하면, 『敎會史硏究의 개척자이시자 권위자이시다. 선생님이 천주교신자이신 데서 그서술에 편협한 면이 없지 않다는 일부의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玉의 티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안다. 감히 피력하여 본다면, 선생님의 교회사 관계의 연구야말로 선생님이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하시게 된 동기와 직결된, 韓國文化史 및 思想史의 폭 넓은 시각에서 이룩된 획기적인 업적이 아닌가 살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 제자 한영국박사의 변이다.

이제 人文大學의 학풍을 말함에 있어 빼놓을 수없는 또 한 분을 든다면 李駿河교수라고 하겠다.

韓國語文學·韓國史·文化史가 大宗 이뤄

—學問의 殿堂으로 대학중의 大學—

學術院회원 각종 학술상 受賞者 다수輩出

李교수에 대해서는 인격과 학문면에서 우뚝한 高峯이요, 순수·성실한 성품으로 제자 사랑을 하였고, 동네 촌로의 잔기침에도서 슬치 않고 끼어드는 훈훈한 인간미를 지닌 분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점 그의 제자인 黃燦鎬명예교수(서울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즉, 선생님의 自作 墓碑銘이 바로 이것을 말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 한 사나이 누웠으니 애써 글을 읽고 하늘과, 바람과, 물과, 나무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였으되 성실있기 힘들을 보고 가노라.

라는 銘文으로서, 『誠實性 이외의 어떤 더 큰 덕목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는가』라고 황교수는 잘라 말하고 있다.

李駿河교수의 性品에 대해서는 또 말하기를, 『선생님 표정에서 받는 인상은 그 孤高하심이었다. 선생님은 당시 詩〈혼자 살겠다는 그대〉에서 「그대의 秀高 플라톤처럼 높도다」라고 읊으시었는데 孤高란 말보다 어쩌면 이 秀高란 말이 더 좋은 말일런지는 몰라도 어딘가 외로운 그림자를 우리는 잃을수 있어서 역시 〈孤〉가 들어가야 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가 東京帝大 졸업자가 된 그의 秀才性과 孤高와의 유관성이 지적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기에 〈돌아보는 故國山川〉이란 글에 『허나 그제는 되놈, 어제는 왜놈, 오늘은 코백이 사내로선 脾胃가 뒤틀린다. 내일은 또어떤 놈일까, 가다 팔짱 걷고, 허세도 부려보나 사내인족, 지지리 못난 사내로다』라고 한 李駿河 교수의 글귀를 인용하면서, 『그대로 鶴처럼 秀高하게 사시다 가시고 말았으니!』라고 평한 황교수의 말(1983)이 우리의 눈길을 끌게 한다.

法大24회同期會

會員 1백50명 各界서 要職맡아
卒業20周 맞아 基金 2천만원 募金

法大24회 同期會는 1966년에 입학하여 70년에 졸업한 동문들로 구성된 모임체로 동창회 본연의 정신인 동문상호간의 정의 및 모교발전을 위해 기여함을 목적으로 유대결속과 지난 80년대 초반 創立되었다.

올해로 졸업한지 20년째가 되는 同會는 이제 成年同期會로써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다.

1966년 法大를 입학한 동문은 모두 1백60명. 그간 他界하거나 海外居住동문들을 제외하고 1백54명의 同期들이 주축이 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사회 각계각층에서 要職들맡고 있는 重鎭들로 國家및 社會發展에 기여하고 있다.

同會 會員들의 사회진출상을 보면 法曹界에 法院 檢·警察 및 辯護士로 활약하는 동문이 42명, 官界에 19명, 學界에 10명, 金融界에 24명, 實業界에 專門經營人을 비롯한 重役級등 42명, 그밖의 自由業에 종사하는 17명이 말아 會長을 이끌어온 역대 會長을 보면 초대 崔鍾庫동문(母校法大敎授) 당시 初代會長에는 이 말아 創立의 기틀을 다졌고 2代 金尙哲동문(변호사), 3代 柳永赫동문(변호사), 4·5代 朴泰勳동문(변호사)이 말아 會의 組織擴大와 內實을 다지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며 현재는인권변호사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朴容逸동문이 말아 活性化를 위해 진력하고 있다.

同會는 매년 12월 送年會를 겸한 定期總會를 열어 임원의 改選과 사업계획에 대한 토의를 벌이며 친목유대를 위한 여러가지 行事의 방향등을 논의한다.

會員들을 위한 親睦行事로는 매월 첫째주 일요일마다 갖는 등산대회를 들수 있다.

모교 정문앞에서 모여 관악산을 등반하는 이 행사는 회원들의 호응이 날로 높아져 매월 定期的 행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밖에 夏節期에 열리게 되는 가족 동반야유회는 동문가족들의 성원에 힘입어 올해는 남이섬으로 갈 예정이라고.

이와같은 정기모임외에 昇進·開業·創社등 축하해야 될 일이 있거나 喪事시에도 수시로 전회원이 모여 상부상조하고 있다.

同會에서 추진하게 될 올해의 주요사업은 1990년도 졸업 20주년 기념행사준비와 함께 모교지원을 위한 2천만원 기금조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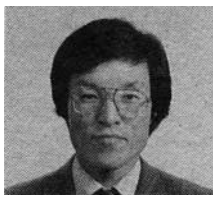
이를 위해 同會에서는 각 분야별로 기금 모금액을 정하고 幹事를 선임하여 목표를 달성토록 하였다.

法大24회同期會의 總務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朴敏煥동문(실크로드양행 代表)은 『올해는 저희 동기들이 모교를 떠난지 20년째가 되는 매우 뜻깊은 해』라고 밝힌후 『회원간의 친목도모·조직의 체계화·기금조성등의 사업에 중점을 두어 모든 동기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뜻있는 동창회로 발돋움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남다른 의욕을 보인다.

또한 朴총무는 『아직은 단결력이 약한 동창회여서 어려운 점이 많지만 無에서 有를창출해내는 과정이라 여기고 열심히 뛸 생각』이라고 다짐한다.

同會의 임원진과 각 분야별 간사명단은 다음과 같다.

▲會長:朴容逸(변호사) ▲副會長:金庸柱(서울고등법원판사)·洪柱冠(동방증권 인수공모부장)·金善煥(㈜소구실업 代表理事) ▲總務:朴敏煥(실크로드양행 代表) ▲監事:李碩熙(국세청 소득세과장)·金尙泰(태산상호신용금고 상무이사) ▲幹事 法院:金庸柱, 檢·警察:柳明建(사법연수원 검사), 辯護士:朴容逸, 官界:柳正錫(국무총리행정조정실제1조정관실과장), 學界:朴世逸(母校 法大敎授), 金融界:洪柱冠, 綜合商社:金善煥, 一般實業界:朴敏煥, 地方(釜山):康榮國(서무산업㈜)


朴容逸회장

金善煥부회장

金庸柱부회장

洪柱冠부회장

朴敏煥총무

문인 探訪

藥大麻浦支部

藥大麻浦支部는 母校藥學大學의 전신이었던 朝鮮藥學校, 京城藥學專門學校, 서울藥學大學의 졸업자를 포함한 고든 서울大人의 모임으로 麻浦區내 22개동에 거주하는 동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81년 창립된 당시 藥大麻浦支部는 他支部와 마찬가지로 『麻浦區내에 거주하는 서울大 藥大출신 동문간의 친목 도모 및 麻浦區지역 藥業界와 모교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상호협력한』을 목적으로 발족되었다.

同支部의 현재 회원은 모두 43명이며 이 중 開局同門이 21명으로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밖에 製藥會社나 藥學界에서 활동하고 있는 非開局同門이 22명에 이른다.

同支部의 회원들은 같은 학교를 졸업했다는 同門意識외에 같은 지역내에서 비슷한 업종에 종사한다는 同質感으로 이들의 유대관계는 한층 더 단단하다.

同支部는 매년 3월에 열리는 定期總會를 비롯해 3회의 정기모임을 갖고 있으며 임원진들은 支部 활성화를 위해 수시로 모임을 가지며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특히 올해의 주요사업 목적을 「親睦」에두고 회원간의 和合과 활동의 폭을 넓히기 위해 타지부와 연대하여 合同野遊會를 개최할예정이다.

趙來珪부지부장

李萬載지부장

開局동문 主軸 地域사회 봉사활동
세미나·野遊會열어 協同心 북돋아

이밖에 여가생활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많은 開局藥師들과 다른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등산·낚시등의 취미모임을 새롭게 만들 계획이다.

藥大麻浦支部의 임원진은 支部長 1人, 副支部長 1人, 總務 1人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이다.

初大支部長에는 藥界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고 있는 權景坤동문(현암약국·大韓藥師會 副會長)이 말아창립의 기틀을 다지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며 그후 金秉奎동문(세종약국·삼익제약㈜ 社長)이 말아 支部조직의 擴大를 위해 많은 공로를 남겼고 현재는 李萬載동문(민원약국)이 말아 제반사업의 활성화를 이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李支部長은 『회원의 연령분포가 20대에서 70대까지로 폭넓게 퍼져 있어 전체 회원의 일치단결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소개한후 『그러나 보다 많은 만남의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알찬 支部를만들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同支部에서는 적극적인 慶弔事참여와 함께 세미나·야유회등 다양한 마련함으로써 친목위주의 모임에서 벗어나 서로 相扶相助하고 함께 研究하는 보다 성숙한 支部로 가꿔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회원들의 열의가 藥師會活動에도 반영되어 黃源性동문(태광사노피㈜ 社長)이 大韓藥師會 會長을 역임한데 이어 朴暎吉동문(광혜약국)이 麻浦藥師會 總會議長으로, 金秉奎동문(세종약국)이 總會副議長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밖에 非開局동문들중에서는 安福順동문(천일제약㈜ 代表)·柳永植동문(동신제약㈜ 會長)이 약계의 중진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金信根동문(母校 藥大敎授)·李鍾華동문(한양대敎授)이 학계에서 활약하고 있다.

「參與·協力·榮光」이라는 同窓會의 기치아래 뭉친 藥大麻浦支部는 區民건강에 미치는 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여 서울大人으로써 矜持를 갖는 支部로서 욱 발전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同支部의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支部長:李萬載(민원약국) ▲副支副長:趙來珪(제중당약국) ▲總務:李鍾植(현정약국)

期·科·서클활동을 소개하고 싶은 모임이 있으면 아래 전화로 연락주십시오.

702-2233~5

韓國哲學界의 元老

— 鶴峴 金桂淑선생님

잊을 수 없는 스승

—글·姜湘哲
〈57년 師大卒·忠南大교수〉

한국철학계의 원로 金桂淑박사께서 1월12일 향년 85세로 他界하셨다. 그 며칠전만 하여도 동문회 신년 하례회에 여느때와 같이, 나오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민주화시대와 교육자의 사명」에 대하여 힘주어 말씀해 주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뵈는것만 같은데, 갑자기 訃音을 듣고 보니, 그것이 마지막 일줄이야, 믿어지지가 않는다. 평소에 못다한 도리를 생각하면 허전하고 그 심오한 학문을 이어 받지 못한 아쉬운 마음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럽지만는, 이를 무릅쓰고 「잊을수 없는 스승」과의 생활체험을 몇가지 적어 볼까 한다.

金桂淑선생님을 처음 뵙게 된것은 6·25 피난시절 부산에서였다. 1953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철학기를 마치고 귀향하기에 앞서 선생님을 찾아 뵙고 좋은 말씀을 듣고 싶어서였다. 구덕산 아래 어느 높은 곳에 위치한 宅으로 찾아 갔었는데 처음 뵙기에 기골이 장대하시고 키가 훤칠하게 커 보이셨다. 사모님께서 의상학을 전공해서인지 항상 말쑥한 신사차림 또한 평소에 인상적이었다. 그때일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문동하느냐」고 물으시는 것이었다.

나중에 알게된 일이지마는 선생님께서는 규칙적인 생활과 절제있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남다른 건강을 지니셨다. 발걸음 소리는 마치 무거운 쇳덩이가 땅에 떨어지는것 같아서 방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골목안을 들어서면은 곧 알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여행과 산책이 취미이시고, 안면도 학술답사 갔을 때에도 수영을 즐기시며, 식사는 천천히 즐겁게 밥을 몇에 말아 먹지 않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또 무교동 어느 한홍집에서 보신탕을 맛있게 잡수시며 겸게 그을린 나의 얼굴을 보시고는 「농촌지도자 답단고 대견해 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근엄하면서도 平民다운 인간미가 마음을 사로 잡는것 같았다. 민주사회의 건설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통일의 신탕을 그리린 나의 얼굴을 보시고는 「농촌지도자 답단고 대견해 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근엄하면서도 平民다운 인간미가 마음을 사로 잡는것 같았다. 민주사회의 건설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통일의 저서를 읽을 때에는 한국의 현대사조의 맥박을 느끼는 것 같은 무엇인가 가슴에 끓어 오르는 것을 감지하게 된다.

선생님께서는 제자들의 취업과 결혼사에 까지도 발벗고 나서는 적극성을 보이셨다. 한때 서울대학교 사대부속중학교 校長으로 계셨는데, 이론을 실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었다. 이때 필자는 그곳에서 가르칠수 있는 행운을 얻어 대학원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敎育哲學特講」은 한번도 빼놓지 않으셨다.

그때 선생님을 모시고 「社會科敎育硏究會」의 창설을 위하여 幹事役을 맡았던일, 나중에 필자가 「敎育社會學硏究會」의 책임을 맡아 일했었지마는 지금도 그의 저서를 읽을 때에는 한국의 현대사조의 맥박을 느끼는 것 같은 무엇인가 가슴에 끓어 오르는 것을 감지하게 된다.

헤겔 硏究로 母校서 博士학위

◇故 金桂淑교수

선생님께서는 제자들의 취업과 결혼사에 까지도 발벗고 나서는 적극성을 보이셨다. 한때 서울대학교 사대부속중학교 校長으로 계셨는데, 이론을 실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었다. 이때 필자는 그곳에서 가르칠수 있는 행운을 얻어 대학원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敎育哲學特講」은 한번도 빼놓지 않으셨다.

그때 선생님을 모시고 「社會科敎育硏究會」의 창설을 위하여 幹事役을 맡았던일, 나중에 필자가 「敎育社會學硏究會」의 책임을 맡아 일할때 그 연구지의 휘호를 써주시며 지도해 주시던일 또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1905년 함남 홍원군에서 中農의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그곳은 아주 추운 겨울이 오래 계속되기 때문에 황막한 자연환경의 어려운속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황소와 같이 끈기있게 꾸준히 싸우는 畓田鬪牛의 기질이 깃든 곳이라고 한다. 거센 환경과 잔재주 부리지 않고 꾸준히 힘차게 싸우는 정신은 우리의 전통적 가치라고 자랑하시며, 인내성, 지속성, 투쟁력, 그리고 굳은 의지와 순박성을 지니고, 불우한 환경과 악조건에서도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굳세게 싸워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北靑를 장수의 갑부정신이 연상되어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

1923년 함흥고등보통학교를 마칠 때에는 이미 日帝의 강권이 시작되는 착잡한 역사적 상황이어서 새로운 앞날의 개척을 위하여 농민의 아들로서 갖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학구욕을 금할 수 없어서 鄭寅普, 玄相允선생님을 찾아 다니면서 개화와 교육에 의하여 저항의 정열을 쏟으셨다. (「둥너머 思索길」 휘문출판사, 1982).

3·1운동후 요원의 불같이 일어나던 민족의 向學熱과 함께 가슴에 타오르는 불같은 것을 안고 한국에서 최초로 문을 연 京城帝大에서 새로운 지식과 사조를 가슴에 목마른 大地가 빗물을 흡수하듯 西洋의 近代學問과 思想을 받아들이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강의나 듣고 시험공부에나 열중하는 그런 모범생은 아니었다고 한다. 1차大戰후 世界思潮이었으며 민족해방운동의 중요한 이데올로기가 되었던 맑스주의가 무엇인가를 몹시 알고 싶어서 1926년 동창 兪鎭午선생님과 함께 「경제연구회」를 조직하여 유물사관에 관한 저서를 윤독 했다고 한다. (金桂淑박사 古稀기념논총, 1975).

개화에 대한 동경과 새로운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東京帝大에 유학하여 계속 헤겔의 역사철학은 해방후 새나라건설에 많은 암시를 주었다. 1970년에는 독일에서의 헤겔탄생 2백주년 기념행사에도 참가하였으며 오로지 교육과 학술 한국의 건설에 진력하셨다.

해방후부터 서울대교수, 사대부학장으로, 「社會科」를 창설하였으며, 교무처장, 도서관장, 대학원장, 명예교수를 거쳐, 건국대교수를 끝으로 교단을 떠난후 학술원 원로회원, 또 일찌이 한국철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대한민국 학술원상을 받으셨고, 八旬고령에도 「人間의 존엄성과 가치」에 관한 主題發表를 비롯하여 한국철학 責學등을 두루 섭렵하셨다. 『헤겔의 論理學』(민중서관, 1955)을 번역하였고, 필사의 정력을 기울였다는 『헤겔硏究』(풍국학원, 1958)로 서울대에서 博士學位를 받으셨는데, 이 論文은 현실문제의 해결에 암시를 주는 사회과학서로 보였다. 헤겔연구의 총결산으로 『헤겔 哲學과 自由의 精神』(서울大 出版部, 1967)은 지금 한국의 民主化 自律化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그후에도 『유이의 현대에대한 도전』(1970), 『유이의 哲學』(1974)을 계속 발표하였으며, 『敎育과 哲學』(一潮閣, 1980) 서문에서는, 사회개혁을 위한 교육 文化의 발전에서는 그 근본적인 사상적 이론적 기반과 함께 주체적 실천력의 건전성과 올바른 가치관에 의한 정신혁명의 성취를 강조 하였다. 필자가 1985년 플브라이트 교환교수로 미국에 다녀와 보니, 西洋哲學을 공부하겠다는 딸아이가 金박사께서 싸인을 하신 『改稿新版 西洋哲學史』(一潮閣, 1985)를 전해 주었다. 그서문을 읽어보니, 『…生命을 회생하면서까지 싸운 「철학적 사색」과 그 정신의 발전 모습을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哲學의 역사는 「사람의 自由」를 위하여 싸워 내려온 歷史인 동시에 싸우는 自由精神의 역사이며, 역사창조의 기본이다. 따라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하여, 새로운 自由의 思想을 이해 하여야 하며, 그것은 튼튼한 학문적 기반을 정확하게 파악할때 더욱 확실해 진다는 고 하였다.

"많은 일 할 사람은 많은 준비를 하라"… 弟子訓

— 生前에 高等數學 꿰뚫지 못한 것 恨으로 여겨 —

서울大 中央도서관에 藏書 1천5백권 기증

서울大學校 중앙도서관 5층에는 金桂淑명예교수기증도서 1천4백75권이 「鶴峴文庫」로 비치되어 있는데, 아호 鶴峴은 鶴의 고매한 기상과 生前에 阿峴洞, 鶴洞, 논현동등에 사신데에 연유한다. 그 내용은 헤겔및 칸트철학, 서양철학사및 교육철학에 관한 서양서 4백93권과 일본도서 7백3권 그리고 고희 화갑기념논문등 국내도서 2백79권이 듀이(Dewey)식으로 분류되어 있다. 수년전 「세계과학자대회」가 서울에서 열렸을때 그 준비위원으로 밤늦게까지 일하시던 정정한 모습이 생생한데…, 지금도 미소를 지으며 『姜君』하고 다정하게 손을 힘껏 잡아 주실 것만 같다.

그 많은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다한철천지 원한을 참회하시기도 하셨다. 즉 한국철학에 정통하지 못하여 철학교수에 그치고 철학자가 되지 못한것, 고등수학을 꿰뚫지 못하여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원리를 극복하지 못한것, 그리고 고향땅 백두산에오르지 못한것이 후회막심하다고 고백하셨다. 이 모든 것을 후진에게 물려 주시고 지금은 용인 천주교 공원묘지에 고히 잠들고 계시다. 다 성장한 2男3女 유가족과 각계에서 굳건하게 확약하고 있는 同學·後進등 함께 명복을 빌면서.

國際情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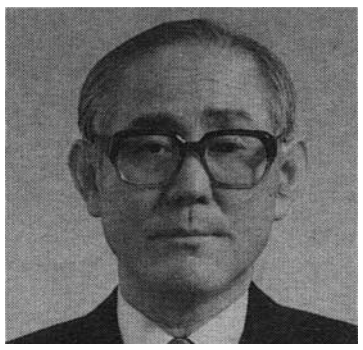
89年의 展望

초대석⑤

冷戰論理 크게 退色, 新데탕트 무드로

韓美間의 紐帶 貿易마찰로 反美性向 짙어져

共産圈과의 交流 활발하나 外交관계엔 未及



金榮國
〈54년 文理大卒 · 本報編輯委員
母校副總長〉

1989년은 80년대를 마무리짓는 마지막해이며, 동시에 21세기를 향한 마지막 10년으로 접어드는 해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 시기를 區劃하는 중요한 한 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40여년간 世界를 주름잡았던 冷戰論理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고 새로운 데탕트무드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리고 各國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변화는 民主化 開放및 改革등으로 특징지워지는 새로운 理念을 지향하고 있다. 국제사회에는 언제나 暖流와 寒流가 서로 엇갈려 흐르고 있는 법이다. 和解 平和 協力 親睦 軍縮 상호개방등은 국제사회의 暖流를 나타내는 상징이며 戰爭 紛爭 不和 激突 軍擴 斷絶 등은 寒流를 나타내는 상징이라할 수 있다. 최근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정세의 변화는 暖流의 성격을 짙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작년 12월 7일 소련의 「고르바초프」 당서기장은 미국의 「부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美·蘇정상회담을 개최, 소련군 50만을 일방적으로 감축시킬 것을 선언했다. 그 전해에 「레이건」 전 미대통령이 소련을 방문해서 美蘇核廢棄를 삼호감시하에 북할 것을 약속하고 사실상 중거리핵무기를 폐기시켰다. 그동안 세계를 긴장시켰던 이란·이라크전도 작년으로 종식되었고 長期間에 걸쳐 아프가니스탄에주둔했던 소련군도 금년초에 모두 철수했다. 中東에 있어서의 해묵은 紛爭도 팔레스타인의 독립국선언으로 타개를 보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暖流를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변을 살펴볼 때, 종전의 友邦국가와의 관계가 점차 寒流化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國際氣流는 이같이 반드시 우리에게 유리하게만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寒流의 향방도 우리의 주요관심사가 되는 것이다.

■주변 정세의 變化

오늘의 世界推勢를 이끎은 지면에서 모두 살핀다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니, 여기서는 우리의 주변 정세를 중심으로 생각해보기로 한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변화는 新데탕트무드라고 할 수 있다. 우선 共産圈과의 관계에 있어 크큰 변화가 일어나고있다. 오랫동안 冷戰時代의假想敵이었던 공산국의 여러 나라와의 門戶가 개방되었다. 이러한 문호개방은 소련과 중국과 같은 인접국으로 국한되지 않고 멀리 東歐의 여러나라로까지 확대되었다. 더구나 헝가리와의 경제협력관계의 수립은 획기적인 일이었으며, 이러한 관계의 정립은 앞으로 東歐의 여러나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共産國家와의 교류의확대는 우리의 국내적 사정을 考慮밖으로 한다면 개방정책의 실현이라는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작년의 헝가리와의 경제협력관계수립 당시, 北韓은 헝가리와의外交關係의 단절까지도 불사했다. 그러나 금년에 들어서면서 東歐의 여러나라가 韓國과의 교류를 희망하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자 더 이상의 강경태세를 보이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지금까지 경색되었던 共産國家와의 관계개선을 나타내는 것이나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友邦國으로 있었던 美國과의 마찰이 점점 심각하게 되고 있는 것이다. 安保및 經濟의 측면에 있어서의마찰은 美國이 日本 韓國에 대해서 軍事費부담을 가중시키고 貿易자유화의 폭을 확대시키려는 압력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마찰은 특히 韓國에 있어서의 反美感情의 유발이라는 심각한 사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美國은 이러한 사태에도불구하고 강제적인 압력을가해오고 있다는 점에 더욱 사태의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다. 이같이 韓國과 美國간에는 그전에 없었던 寒流가 감돌기 시작하고 있으며, 89년은 이 문제를둘러싸고 큰 파란이 예상된다.

■美國의 展望

새로 대통령으로 당선된 美國의 「부시」 대통령은 지난 8년간 「레이건」이 씨를 뿌린 「위대한 미국」을 계속 유지발전시켜야 하는 무거운 짐을 안고 있다. 우선 국제적 위신의 차원에서볼 때 美國은 冷戰時代에 유지했던 국제적 위신의 상당부분을 상실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계속될 것 같다. 이러한 추세속에서 소련의 軍縮제안에 힘입어 對蘇軍事力均衡의 길을찾고있다. 美國은 越南戰이후로 海外兵力투입을 억제하는 한편 地域紛爭에의 개입도 삼가함으로써 自國安全第一主義를 추구해왔거니와 앞으로도 계속해서 軍事費를 감축시켜야 할 추세에 있다. 특히 앞으로 5년간 國防費를 삭감하려는 議會의 압력으로 인해서 日本과 韓國에 대한 방위분담의 압력은 더욱 커질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늘의 美國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불황일 것이다. 美國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負債國으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의 財政赤字도 二兆弗이나 된다. 이러한 財政難을 해소하기위해서 美國은 현재 온갖수단을 다 쓰고 있다. 이러한 經濟難의 원인으로는여러가지 사항이 지적되고있으며, 우선 財政赤字의 요인으로는 과다한 軍事費支出, 社會保障費의 증가가 지적될 수 있고, 經濟不況의 원인으로는 生産性低下로 인한 대외경쟁력약화, 日本 韓國 및 기타의 開途國의世界貿易市場으로의 진출로인한 무역적자의 急增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소련의공격에 의한 核戰爭의 발발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美國은 새로운 經濟危機를맞이하게 된 셈이다. 이제는 세계의 超强大國으로서 세계적 安保의 담당자라는입장보다는 自國의 경제난을 해소하려는 입장을 더욱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는실정이다.

■소련의 動向

소련은 고르바초프의 등장이후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변화의 물결은 대체로 「고르바초프」의 新思考를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新思考는 民主開放및 改革을 핵심으로 하는 것이었다. 돌이켜 생각해볼때 소련은 그동안 심각한 經濟難에 시달려왔다. 그 主原因은 무엇보다도 과중한 軍事費부담에 있었다. 오늘의 新思考도 따지고보면 과다한 軍事費 부담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고르바초프」의 改革政策 저변에는 이러한 美蘇관계의 改善과 安定을 바라는 의욕이 깔려있다고 보아야할것이다. 이미 말한바와 같이 소련은 中短距離미사일폐기조약에 조인하였거니와 금년에 들어서면서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軍隊를 완전히 철수시켰고, 기타 지역에 있어서도 병력을 삭감시켰다. 이러한 소련의 움직임이 美國의 對蘇警戒心을 완화시키고 軍費부담을 감축시킴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은 매우 분명하다. 소련의 개혁운동은 작년에 시작해서 90년까지 제2단계를 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련의 개혁운동은 제1, 제2, 제3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제1단계는 일종의 준비단계로서, 85년에서 87년까지를 말한다. 이 단계는 주로 이론의 정립과 홍보의 단계라고 볼수 있다. 제2단계는 88년에서 90년까지의 과도기 말한다. 제3단계는 90년이후의 도약단계이다. 89년은 제2단계의 과도적 단계로서 금년에는 개혁에 필요한 제반제도를 정비하고 구축하게 된다. 소련은 이미 개혁에 필요한 理論定立과 국내외적 弘報活動을 마쳤다고 볼 수 있다.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 등의 용어는 오늘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이를 위한 制度整備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으며, 「고르바초프」도 支持基盤의 확충을 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中國의 경우

大陸과 台灣의 관계는 매우 급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앞서고 있음은 누구나 알고있는 바이다. 여기서 大陸의 사정을 살펴보면, 鄧小平登局이후 中國의 4大현대화계획은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지난 10년간 中國의 개방 개혁정책은 소련과의 화해, 자유세계와의 폭넓은 交流등으로 특색지워진다. 對內的으로는 이른바 商品經濟의 실천으로 개인의 生産誘因이 고조되고 생산성의 향상과 國民的 수요의 충족을 어느정도 기할수 있었다. 그동안 사상적으로는 毛澤東의 평가가 切下되고 10년간에 걸친 紅衛兵亂動이 규탄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른바 商品經濟體制는 오늘날 심각한 경제위기를 가져왔다. 그것은 종전까지의 社會主義經濟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이었다. 商品經濟下에서는 수요에따른 생산이 문제가 되기때문에 計劃生産을 지향하는 舊體制속에서는 원활하게 운영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商品經濟體制의 도입은 경제질서뿐 아니라 中國의 사회전체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社會主義體制자체의 존립을 위협할 가능성도 있다. 사실 오늘의 中國에 있어서는 급격한 개혁으로인한 많은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社會主義에 대한 회의, 급격한 물가상승, 경제질서의 혼란, 사회주의적 倫理와 道德의 해체등이 그것이다. 이러한요인은 그동안의 開放·改革에 상당한 제동을 걸었다. 금년 4월현재 北京에서 시작된 大學街의 反鄧小平시위는 어느 의미에서 그동안의 개방·개혁에 대한 反作用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아무튼 中國은 지금까지의 지나친 開放·改革을 억압하고 당분간 경제정책조정기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르바초프 改革정책으로 對蘇경계심 누그러져

國益에 따라 변모하는 日政府、공산권과 關係改善

급격開放정책에 몸살앓는 中國 大學街데모 誘發

■日本의 內憂

日本의 竹下內閣은 87년 이후로 이른바 리크루트스캔들로 인해서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 近著의 뉴스위크誌는 竹下노보루의사임을 확정적인 것으로 내다보고 5월중에 1년반에 걸친 집권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수상으로는 리크루트스캔들로 汚染되지 않은 自民黨의 다른 지도자가 有力視되고 있는 가운데, 이 기회를 이용해서 執權을 노리는 野黨의 연합도 만만치 않은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2次大戰後지금까지 장세월에 걸쳐 집권해온 自民黨이 이번 사건으로 失權할 것 같지는 않으며, 후임首相이 누가되든지간에 지금까지의 政策路線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지는 않다. 外交의측면에서 볼때 日本은 美國과의 관계에 있어 우리나라와 마찰가지로 엔高현상과 무역마찰및 시장개방문제로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불리한 조건하에서도 꾸준한 經濟成長을 거듭하고 있다. 다른 한편 對共産圈관계에 있어서 日本은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소련과 中共과의 관계개선은 주로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으나, 그동안 괄목할만한 協力관계를 이룩하지 못하고 있는 것같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日本이 韓半島의 긴장완화에 개입하기 시작한 사실이다. 이것은 다른 한편에 있어 日本이 美·蘇·中國과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외교적 주도권을공유하려는 試圖와도 직결된다고 볼수 있다. 금년에 들어서면서 日本은 南北對話를 지지하면서 北韓과의관계개선을 서두르고 있다. 北韓과의 교류는 주로 經濟的인 것이나, 日本의 적극적 노력에 비해서 北韓측의 반응은 그다지 크지 않다. 그러나 일본은 國益의 필요에 따라 韓半島에 있어서의 긴장완화를 중요시할 것이며, 對共産圈관계를 더욱 개선함으로써 韓半島에 있어서의 自國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려 할 것이 틀림없다.

■平和共存의 向方

평화공존의 원리는 共産諸國들이 資本主義國家와의 관계를 규정한 원리이다. 그것은 2차대전이후의 冷戰體制를 平和와 協力의 체제로 전환시킨 원리로 흔히 알려지고 있다. 平和共存論이 등장한 이후로 東西간의 화해무드가 조성되어 이른바 데탕트시대가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平和共存으로 국제사회에 사실상의 平和가 온 것은 아니다. 그동안 지역적 紛爭은 世界의 여러곳에서 발발했고, 共産圈과 自由世界간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도 아니다. 평화공존은 共産世界와 資本主義世界의 화합을 기하려는 이념이 아니다. 共産國家에서는 이데올로기와 政治및 軍事를 제외한 다른 분야, 예컨대 經濟社會 文化分野에 있어서의 협력과 교류를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데올로기와 政治面에 있어서의 대결·경직성과 그대로 유지하면서, 資本主義國家에 대해서 門戶를 개방하여 협력과 교류를 꾀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것과는 그 뜻이 매우 다르다. 그러기에 平和共存時代는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寒流가 가셔지지 않고 있는 시대였다고 볼수 있다. 오늘날 共産國家와의 교류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經濟的 측면에서는 많은 關係改善이 논의되고 있고 사실상의 協力關係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소련은 中國은 우리나라를 정식으로 승인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東歐의 여러共産國家는 우리나라와의 外交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모두 平和共存論으로 풀이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공존은 東西양진영의 대결을 대화로 이끌어감에 있어서 크나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동결되었던 國際社會에 해빙의 暖流를 부어준 효력을 갖는 것이었다. 美·蘇·中國 그리고 日本간에 진정한 화해무드가 짙어가게되는 平和共存이 갖는 정치적 대결과 경색의 寒流로 약화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되면 새시대의 平和를 상징하는 새로운 氣流가 형성될 것이다.

끝으로 北韓에는 平和共存이라는 용어조차 없다는 사실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근년에 출판된 사회과학사전이나 철학사전을 들추어도 平和共存이라는 용어는 찾아볼 수가 없다. 물론 北韓측이 平和共存을 提案한 일도 없다. 이것은 北韓社會의 폐쇄성과 경직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北韓이 폐쇄성과 경직성을 지니고 있는한 우리 주변의 國際的 寒流는 좀체로 가셔지지 않을 것이다.

科·同期會 명부를 보내 주시면 名簿편찬에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 발행된 동창회 산하 各科·同期會및 科모임 名單을 빠짐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낼곳 : 〈121－040〉麻浦區 桃花洞18－2서울大同窓會 ◇연락처 : 名簿編纂室(702－2233～5, 717－8536～7)

名譽敎授칼럼

蠶業기술의 傳來와 起源

崔 炳 熙
〈前 農大교수〉

中國蠶業技術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형식은 당초 口傳方式이었다. 3천년전 三國時代의 기록으로 되어있는 「東國地理」책자에 「敎民以禮儀田蠶織作芸芸」이라는 어귀가 있는 것을 보면 그당시 백성에 대한 교리로서 예의에지 중하였고 일반농사와 더불어 누에치기와 길쌈을 강조하였음을 알수 있다.

이와같은 정책적인 句節은 新羅, 百濟시대에도 출현되고 있지만 文書化된 초기의 이야기며 실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우리나라에 口傳된 것이다. 그 이유로서 5천년역사를 가진 中國蠶業이 2천년 후에야 우리나라에 傳入되었다고 볼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口傳技術이 유지되어 오다가 고려말 高麗使臣이 元나라에 갔다 오는길에 「農桑輯要」라는 책자를 빌려온 것을 香村 李函 선생이 복필한 것이 최초의 文書化게기가 되었고 朝鮮朝시대에 들어가서 2대 定宗(1399년)때 先蠶제사를 지냈다는 기록과 3대 太宗時代에 親蠶禮를 궁중실시했으며 4대 世宗시대에 「農事直說」을 펴냈는데 누에치기가 포함되었으며 7대 世祖시대에 「蠶書註解」(1460년)이외 1460년대에 몇가지 蠶業技術册이 수필형식으로 발행한 사실이 있고 21대 英祖時代에는 親蠶實施를 했었다는 李朝실록이 있다. 이와같이 우리나라 왕실에서 蠶業에 관심을 갖고 農民勸蠶과 蠶業成功을 축원한 사실이 書册記錄化가 이루어진 사실은 귀중한 자료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蠶業技術이 일본으로 옮겨간 시대는 新羅百濟時代이며 일본에서 발간된 「蠶業古典集成」책자에 의하면 일본 蠶業의 시초는 제29대 欽明天皇시대(A·D539~571)이며 외국인 구례직(句麗織)이 도래하여 欽明天皇의 공주인 赫夜姬(가구야히메)에게 누에치기와 길쌈을 전수했는데 欽明天皇은 영리해서 염색까지 하게된 것이 日本蠶絲業의 시초라고 기재되어 있고 吳織의 말을 따서 비단옷감을 吳服(고후구)라 했는데 이것이 연유가 되어서 일본옷 감상점을 吳服屋(고후구야)라고 하고 있다. (註·吳字는 일본말로 「구레」라고 읽는다)

재일작가 金達壽씨는 「일본에 살아있는 韓國」이라는 논문에서 吳織과 漢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일본 히노구마 가까이에 구리하라라 불리는 곳이 있다. 이곳은 원래 구레하라(吳原)이다. 이역시 아야(漢)織의 아야(漢)와 마찬가지로 吳라는 글자를 갖다붙인 것이므로 고대중국에 있던 吳나라와 혼돈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도 高句麗에서 온 것이다. 「高」는 고구려의 國姓이며 大和(야마또)의 「大」와 같이 美稱(和만으로 아마또라고 읽는다)이므로 그 「高」를 떼고나면 「구레」(註: 日本發音으로는 「려카」「레」로 된다)가 되는 것이다. 아야하또리(漢織) 아나하또리(穴織)에 대한 구레하또리(吳織)라는 것도 여기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말할 나위 없다. 그당시 高句麗와 百濟는 거의 같은 뜻으로 알려져 있으며 百濟를 일본에서 「구다라」라고 읽는연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吳織은 吳氏織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의 통칭이다.

百濟人、奈良의 吳原에 집단移住
中國-韓國 거쳐 日本에 전수

欽明天皇은 일본수도 奈良에 있을 때의 천황이며 「나라」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나라국, 國」의 나라와 같다는데서 奈良시대이전에 신라 백제인들이 渡船해서 奈良지방에서 집단생활을 했으므로 인하여 또 王室政治의 중요역할을 말아 주도적일을 다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吳織女를 蠶神으로 받들고 吳織女의 묘소지방을 부르면서 姬路(히메지)라는 蠶神神社에는 일본 지난 겨울 방학에는 마침 좋은 기회가 있어서 단체관광에 끼어 남태평양을 여행하고왔다.

『여행은 피곤한 인생에 새로운 활력을 안겨주는 아름다운 餘白이며 숨가쁜 日課에서의 희귀한 해방이요, 혜택받은 放浪이라고 어느 문인은 맵시있게 표현했다.

그 문인의 이런 화려한 표현을 빌지 않아도 내게 있어서 방학중의 여행은 너무나 좋은 휴식이며 멋진보너스이다. 그래서 방학때마다 이 보너스를받고 싶은 생각은 간절하지만 그 보너스는내 뜻대로 잘 찾아와 주질 않는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지난 겨울방학의 보름동안의 여행을 얼마나 즐겼는지 모른다. 특별히 이번 여행은 남태평양의 특이하게 맑은 물을 관광하는 경이로움과 더불어 일행 중의 한 멋쟁이 노신사 Y회장님의 아름다운 父情을 듣고 가슴이 찡해오는 감명을 빚어서 더욱 기억에 남는 것이 되었다.

우리 일행중의 元老이신 Y회장님은 단체행동의 규율을 엄격히 지키시면서 개인시간을 알뜰하게 즐기시는 세련된 여행가이시다. 게다가 적절한 시간에 너그러운 농담으로 전체분위기를 흥겹게 만드는 특출한 재주까지 겸들인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과의 대화를 상당히 즐겼다. 그 대화들 중에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남태평양의 맑은 물속을 관광하면서 그 분이 들려준 그의 아들의 안경이야기였다. 아들의 안경은 몇년전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분의 아들은 지독한 근시안이었던 그 아들은 자연을 사랑했고 물을 특히 사랑했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아들의 유품을 모두태워서 유해와 함께 한강에 뿌렸지만 아들이 쓰던 안경만은 버리지 않고 늘 아버지가 갖고 다녔다는 것이다.

李 惠 星
〈62년 師大卒·
梨花女大교수〉

눈이 나쁜 아들의 영혼이 물속을 더 잘보게 하려고 아버지는맑은 물을 찾을 때까지 그 안경을 간직해왔던 것이다. 그러다가 이번 여행에서 남태평양의물이 투명하게 맑고 평화로운 것을 발견하고 아들의안경을 아들의 영혼에게 돌려주었다는 것이다. Y회장님은 그 안경이 물 속에 잘 가라앉는 것을 보고나니까 그동안 불편했었을 아들이 이제 안경을 쓰고 주위를 잘 볼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완전히 아들을 떠나보낸 것같은 생각에서 너무나슬했다고 말하면서 입으로는 웃고 눈으로는 울고 계셨다.

그 이야기를 듣는내 눈에도 눈물이 고여서 남태평양의 맑은 물속이 희뿌옇기만 했다. 그러나 Y회장님의 아들은 이 순간부터 안경을 써서 맑게 밝아진 눈으로 영원한 자유를 누리며 그의 주변을 즐기고 그 아버지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앞으로 아들의 안경만이아니라 자유로와진 아들의 영혼 전체를 항상 품고 사실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도 속으로는 웃으면서 길으로는 울었다. 그 순간에도 남태평양의 물속은 놀라울 정도로맑았고 그 안에서 자유로이 놀고 있는 열대어의 모습은 한없이평화스러웠다.

同門 수필

아들의 眼鏡

잠업인들이 1년에 1회이상 참배를 하였다는 차제에 충격적인 사실을 소개하면 1985년7월13일자 朝鮮日報에 일본고고학욱연구한바 있는 林浩奎교수가 欽明天皇이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주장한 기사가 게재되고 있다. 林교수는 일본 高松(다까마쓰)고분의 壁畫가 너무나 우리고대의 壁畫와 유사하다는 사실을 들면서 필시 欽明天皇이 우리나라 사람이었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吳織女가 도일후 언어문제에 곤란없이 기술전수가 되었으리라는 뒷받침이 된다. 더구나 이국땅에서 同族人끼리 蠶業에 정열을 얼마나 쏟았을까는 想像하고도 남음이 있다.

한편 棚橋(다나바시)가 쓴 「生絲」라는 책자에 의하면 應神(오진, A·D270~310)天皇14년에 백제의 融通王(실은 義慈王子, A·D641~660)이 1백27부락민들을 거느리고 일본에 귀화하여 養蠶과 機織에 종사토록 하여 蠶業의신기원을 조성 하였다고 하였다. 그후에 中國吳나라(A·D222~280)에 사신을 파견하여 직공을 구했다고 하는데 이말은 欽明天皇(A·D539~571)이전의 시대로서 前後가 맞지 않는 것이며 상기 「吳服史實」을 잘못 조작하였음이 분명하다. 비단의 우리토속말은 「깁」이고 日本말인 「기누」는 「깁누더기」의 줄인 말로서 厚織絹을 뜻한 것에 기인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우리나라 蠶業기술이 최초로 日本에 건너간 것이 확실하다. (註: 옛날에는 누더기옷도 많이 입었음)

이러한 명백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日本사람들은 자기나라 蠶業이 심지어 天照大神이 창조해낸 것처럼 생떼를 쓰는 사람이 있다. 이뿐이랴, 우리나라의 많은 文化및 技術이 일본에 傳授된 사실이 하나 둘이 아니다.

▲宋明翼(48년 音大卒·江陵中學校長) ‖ 3월1일 강릉중학교 교장으로 전임。

▲朴淑鉉(50년 醫大卒·前國會議員) ‖ 최근 개원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의원정기총회에서 제21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金光植(51년 工大卒·漢陽大 工大學長) ‖ 최근 漢陽大 공대 학장에 취임。

▲許塡(51년 工大卒·大韓火藥技術學會會長) ‖ 최근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美國技術士 자격을 취득했다。

▲林光洙(52년 工大卒·本會理事·林光土建會長) ‖ 3월28일 선임됐다。

忠淸日報 사장에

▲鄭雲朝(52년 農大卒·本會理事·有信相互信用金庫 고문) ‖ 4월20일부터 25일까지 日本에서 열리는 (財) 海外技術者연수협회 주최 국제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코 귀국。

▲吳聖植(53년 法大卒·仁濟大 敎授) ‖ 3월부터 1년간 日本 神戶大學 객원교수로 초청되어 도일。

▲朴必載(54년 文理大卒·本會理事·韓國土地開發公社群山臨海工團 직할사업단장) ‖ 최근 한국토지개발공사 서초지사에서 群山臨海工團 직할사업단장으로 전임。

▲洪承丸(54년 法大卒·前第一銀行長) ‖ 지난 3월13일 韓國投資信託 사장에 선임됐다。

▲朴淳錫(55년 農大卒·군포고교장) ‖ 3월1일 화성여중 교감에서 군포고교 교장으로 승진。

▲李信子(55년 美大卒·本會理事·德成女大 藝術大學長) ‖ 3월 훈몽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추대되어 금년도회원전(흙을 素材로 한 작품)을 6월27일부터 가질 예정。

▲許世麟(56년 法大卒·駐브루나이大使) ‖ 3월14일 상뽀로총영사에서 駐브루나이大使에 임명됐다。

▲柳光烈(56년 師大卒·本會理事·韓國自由詩協會長) ‖ 지난 3월16일 미국 워싱턴에서열리는 국제도서전시와 세계언론인 회의에 참가하고 귀국。

▲宋基德(57년 工大卒·本會理事·정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대표) ‖ 大韓建築士會 회장으로서 전국건축사대회를 지난 3월29일부터 30일까지 올림픽 펜싱경기장에서 「정보사회와 건축」을 주제로 개최。

▲鄭然世(57년 工大卒·本會理事·국제항만협회 총재) ‖ 4월21부터 28일까지 美國 마이애미에서 개최되는 제16차 국제항만협회 총회에 참석하고 귀국。

▲金興起(57년 文理大卒·前産銀총재) ‖ 최근 錦湖三井東壓 사장에 취임했다。

▲金斗煥(57년 法大卒·崇實大 敎授) ‖ 한국항공법학회 수석부회장으로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제63차 세계국제법대회 항공법위원회에 참석하여 「항공교통관제의 책임에 관한 논점」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논문이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항공법학술지(Air Law Voll)에 전문이 게재되어 항공법학회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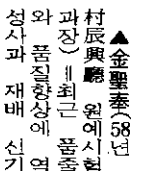
▲尹鍾爀(57년 文理大卒·弘益大敎授) ‖ 지난 2월17일 한국영어교육학회 겨울총회에서 同학회발전및 한국영어교육신

▲黃禎奎(57년 師大卒·母校 師大 敎授) ‖ 최근 그의 저서 「인간의 지능」으로 한국교육학회 학술상 저술부문 상을 수상。

▲沈載錫(57년 商大卒·長期信用銀行감사) ‖ 최근 장기신용은행 감사로 취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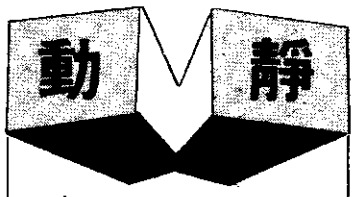
▲金石根(58년 工大卒·대유공업전문대학장) ‖ 3월1일 대학 유공업전문대학 교수에서 취임。

▲金延洙(58년 工大卒·本會理事·長期信用銀行長) ‖ 최근 장기신용은행 전무에서 은행장으로 승진。



▲金聖泰(58년 農大卒·農村振興廳 원예시험장 과수1과장) ‖ 최근 품종여가꾸기와 품질향상에 역점을둔 「왜성사과 재배 신기술」 이란책을 출간。

▲李秉根(58년 師大卒·本會理事·辯護士) ‖ 大檢察廳공판총무부장직을 사임하고 지난4월25일 중구 정동1가28



이 欄은 同門들의 동정을 全회원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職場을 옮기셨거나 職位의 변동을 비롯, 개인의 활동 및 업적에 이르기까지 보다 상세하게 알리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읍니다. 사진과 함께 記事를 보내 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읍니다. 많은 이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電話로 통보해 주셔도 됩니다.
電話 : (702) 2233~5
(717) 8536 ~7

菁신아일보 별관1층105호에 변호사사무실을 개설。(778-33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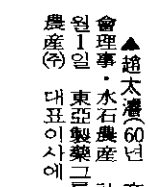
▲李琮湘(58년 法大卒·서울信託銀行이사) ‖ 최근 서울신탁은행 여신기획부장에서 이사로 승진。

▲李啓賑(60년 農大卒·京畿道 建設局長) ‖ 최근 安山市 도시국장에서 경기도 건설국장으로 영전。

▲趙王濟(60년 法大卒·서울信託銀行감사) ‖ 최근 서울신탁은행 상무에서 감사로 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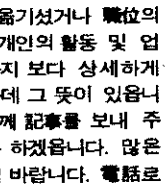
▲具宣會(60년 商大卒·서울信託銀行이사) ‖ 최근 서울신탁은행 영업1부장에서 이사로 승진。

▲鄭鎭興(60년 商大卒·商業銀行이사) ‖ 최근 상업은행 인사부장에서 이사로 승진。



▲趙大濃(60년 商大卒·本會理事·水石農産社長) ‖ 3월1일 東亞製藥그룹인 水石農産(주) 대표이사에 취임。

▲崔東烈(60년 商大卒·韓一銀行理事) ‖ 최근 한일은행 업무기획부장에서 이사로 승진。



▲柳彦浩(60년 醫大卒·中央大 敎授) ‖ 제32차대한순환기학會長에 선임。

▲李喜錫(61년 農大卒·하성중학교 교감) ‖ 3월1일강화군 교육청 학무과 장학사 정기총회에서

▲金容韓(61년 師大卒·津上中學校 교감) ‖ 3월1일전남 광양군 진상중학교 교감으로 전임。

▲李勝雨(61년 齒大卒·母校 齒大敎授) ‖ 대한두개악안면학회 회장으로서 제1회 두개악안면학 장애를 주제로한 지울을 4월24일 네상스 호텔에서 국제로타리 3-690지구 연례학술대회 참석한 가운데 개최。

▲金斗喜(62년 法大卒·本會理事·法務次官) ‖ 최근 법무부 검찰국장에서 차관으로 승진。

▲徐廷信(62년 法大卒·本會理事·法務연수원장) ‖ 최근 법무부 차관에서 법무연수원장으로 전임。

▲金仁喆(62년 師大卒·前三和建設開發會長) ‖ 최근 청소용역·방역소독·방제사업전문업체인 (株)大林綜合管理를 영등포구 신길5동 442-10 5쌍동이빌딩 A동301호에 개설。(845-1679、848-9196)

▲鄭錤永(62년 法大卒·青瓦臺 민정수석비서관) ‖ 3월25일 광주고검 검사장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영전

▲姜奎錫(62년 師大卒·江陵大學長) ‖ 최근 江陵大學校 교수에서 학장에 취임。

▲李佐榮(62년 商大卒·曉星金屬副社長) ‖ 최근 효성금속(주)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

▲安定濬(64년 工大卒·浦項製鐵特殊鋼板사장) ‖ 최근 이사에서 계열기업인 浦項特殊

▲柳京得(65년 法大卒·本會理事·明知大 敎學處長) ‖ 지난 1월 明知大學校 敎學處長(서울캠퍼스)에임명되었으며, 2월17일에는 漢陽大에서 經濟學博士 학위를 받음。

▲朴鍾鳴(65년 獸醫大卒·家畜衛生硏究所 硏究官) ‖ 최근 국내에서 처음으로 「畜産食品중의 殘留物質 검사법」을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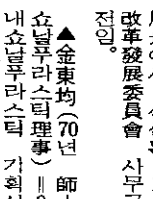
▲金榮泰(66년 美大卒·啓明大 敎授) ‖ 금년 8월까지 美國 노던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객원교수로 재임。

▲崔尙圭(67년 文理大卒·國立科學搜査硏究所 法醫學2課長) ‖ 3월1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生物學室長에서 法醫學2課長으로 전보。

▲曺正基(67년 師大卒·釜山女大 敎授) ‖ 지난 2월23일 美國 골덴 스테이트 大學에서 명예교육학박사 학위를 취득

▲裵武煥(68년 經營大學院卒·本會理事·關東大經商大學長) ‖ 최근 關東大學校 經商大學長에 취임。

▲張泳國(69년 文理大卒·KBS放送改革發展委員會 사무국장) ‖ 최근 KBS라디오局長에서 신설된 KBS放送改革發展委員會 사무국장으로 전임。



▲金潤澤(70년 經營大學院卒·本會理事·대광흥산會長) ‖ 최근 以北5道中央道民會 대표의장에 취임。

▲金東均(70년 師大卒·내쇼날푸라스틱理事) ‖ 3월1일 내쇼날푸라스틱 기획실장에서 이사로 승진。

▲韓宗惠(70년 經營大學院卒·本會理事·외환은행 안산지점장) ‖ 최근 외환은행 올림픽사업실장에서 안산지점장으로 전임。

▲金泰賢(73년 商大卒·財務部증권발행과장) ‖ 최근 재무부 증권업무과장에서 증권

同窓會 新任副會長 李奭熙 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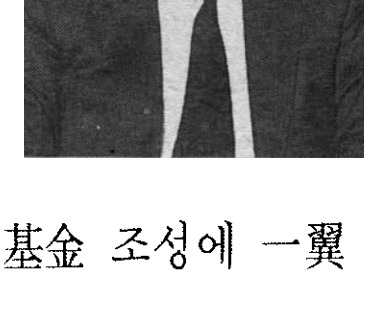
同門을 찾아서

『서울大學校 동창회는 崔主鎬회장님이 맡은 이후 會館을 건립하는등 회원상호간의친목과 결속이 매우 잘 돼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점 동문의 한사람으로 늘 기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차에 副會長의 중임을 뜻밖에말고보니 더욱 무거운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3월25일 개최된 금년도 총회에서李洙彬·趙南煜·鄭夢準동문과 함께 본회 부회장의 일원으로 참여하게된 李奭熙동문은 부회장 취임 소감을 이같이 밝히면서 미력이나마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다하겠다고 굳게 다짐한다.

李부회장은 이번에새로 선임된 4명의 부회장중 가장 선배이며 또한 本會 理事를 비롯하여 京畿高等學校47회同窓會長, 法大9회同期會長, 法大同窓會副會長등을 맡아 동창회사업에 꾸준히 협조해온바 있어, 이번의 본회 부회장 취임은 앞으로 동창회 발전에 큰 活力이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5년 모교 法大를졸업하고 지금의 調達廳인 外資廳에서 관료생활을 시작한 李부회장은 뜻한바 있어 企業界로 진로를 바꿔 그동안 南星産業 업무부장, 漢陽商事 이사를지내다 68년 大宇實業창업멤버로 참여하여 常務·專務·副社長·社長을 차례로 역임했고이어 大宇開發 사장, 大宇自動車 회장, 大宇通信 사장을 거쳐 81년 大宇그룹 부회장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그룹내 建設部門을 총괄하고 있다.



그는 현재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勞使문제에 대해『企業으로서는 금년, 내년이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면 韓國經濟는 크게 成長할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국제경쟁력을잃은 기업들이 결국에는 倒産하는 사태를 빚어 國家發展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는라고 현상황에 큰 우려를 표한후 勞使가 이 문제를 원만히 타협하여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李부회장은 이에 덧붙여 금융정책을 말고 있는 高位當局者에게도 기업이 여러가지로 어려운 때인만큼, 輸入을 좀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원화절상폭을적정수준으로 유지해 줄것을 부탁했다.

그는 현재 大宇그룹의 부회장외 大韓商工會議所 부회장, 韓國經營者總協會 부회장, 韓美經濟協議會 부회장등을 맡아 기업계를 대변하고 있는 입장에있지만 기업발전보다는국가발전이 우선해야 한다는 信念을 굳게 가지고 있다. 그의 이같은 國家觀은 아무래도 祖父의 영향이 큰 듯. 그의 祖父 石吾李東寧선생은 大韓民國임시정부를 中國 上海에 수립하고 初代 議政院議長(현 國會議長)에 대통령, 主席을 지내며 白凡선생을 민족지도자로 이끌어준 큰독립운동가였다. 그리고先親인 李義植씨는 京城帝國大學 醫學部를 1회로 졸업한 수재로 당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醫學博士 학위논문이 통과되었으나 倭政은 독립운동가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학위를 주지않아 해방이 되고 나서야 학위를 받았으며, 초대 서울大 재단이사를 역임한 분이다. 또한 李부회장의 長男 李庸舜씨는 83년 社會大 政治學科를 졸업하여 명실공히『3代가서울大 동문』인 자랑스런 집안이다.

李동문은 본회 副會長에 취임하며, 현재동창회에서 力點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0억기금 조성에 대해『후배들을 위한 奬學金 지급, 敎授硏究費의 대폭적인 확충을 위해 基金을 조성하는 것은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그 취지에 적극찬동한후 大宇그룹에도서 올大 출신이 많은 점을 감안, 적정수준에서 一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大韓요트協會 회장, 大韓올림픽委員會위원으로 체육계에서도 활약이 큰 李부회장은 가족으로는 부인 具然環여사와의 사이에 2男 1女를 두고 있다.

〝10億基金 조성에 一翼 맡을터〟

三代가 영광스런「서울大家族」

▲孫海睦(55년 法大·東國大 法大敎授)‖한국형사법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 4월중순경에는「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

▲金寬泳(55년 師大卒·本會理事·여의도女高 校長)‖3월1일 서울女高 교장에서 여의도여고 교장으로 전임.

▲崔泳璃(55년 師大卒·全北 扶安郡 敎育長)‖최근 鎭安高校 교장에서 扶安郡 교육장으로 영전.

▲金一熙(56년 農大卒·釜山東明專門大學長)‖최근 釜山東明工高 교장으로 있다가 東明專門大學長에 취임.

▲李相日(57년 文理大卒·成均館大敎授)‖최근 열린 한국브레히트협회 창립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됐다.

▲權五琦(57년 法大卒·東亞日報 副社長)‖3월25일 東亞日報 전무에서 부사장으로승진.

▲李鍾根(57년 法大卒·商業銀行상무)‖최근 商業銀行 신용업무부장에서 상무로 승진.

▲金述甲(57년 師大卒·東草商高 校長)‖3월1일 강원도 교육위원회 중등교육과장에서부천여고 교장으로 전임.

▲獨孤瓚雄(59년文理大卒·大光中學校 校長)‖최근大光中學校 校長에 취임.

▲崔光萬(59년 師大卒·富川女高校長)‖최근 경기도교육위원회 중등교육과장에서부천여고 교장으로 전임.

▲金鍾憲(59년 商大卒·第一銀行이사)‖최근 제일은행 영업1부장에서 이사로 승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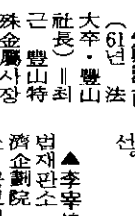
▲崔炳魯(59년 商大卒·水原大 經營大學院長)‖3월1일 水原大 經商大 교수에서 경영대학원장에 취임.

▲丁海昌(60년 法大卒·本會理事·前法務長官)‖3월18일신설된 韓國刊事政策연구원 초대 원장에 취임.

▲姜尙烈(61년 法大卒·정아레저타운副社長)‖최근 정아레저타운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

▲奉鍾顯(61년 法大卒·長期信用銀行전무)‖최근 장기신용은행 이사에서 전무로 승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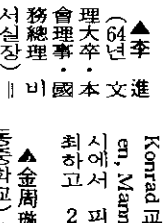
▲鄭勳甫(61년 法大卒·豐山社長)‖최근 豐山特殊金屬사장에서 豐山 사장으로 영전.



▲韓永錫(61년 法大卒·本會理事·서울高檢長)‖최근 서울고검장으로 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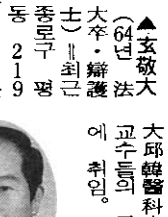
▲金祥基(64년 農大卒·慶北大 敎授)‖최근 FAO가 태국 방콕에서 추천한 아·태지역 농업개발자문회의에참석코 귀국.

▲李進(64년 文理大卒·本會理事·國務總理 비서실장)‖최근 文理大 外交學科 동창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피선.



▲玄敬大(64년 法大卒·辯護士)‖최근 종로구 평동 219 박영빌딩 301호실에 법률사무소를 개설.

▲李宰鎬(64년 法大卒·헌법재판소 公報官)‖최근 經濟企劃院 과장에서 헌법재판소 공보관으로 영전.



▲方孝善(74년 音大卒·慶尙大 敎授)‖지난 1월과 2월 독일 Duisburry음대 Doriz Konrad교수의 초청으로 Essen, Mannheim 등의 5개도시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개최하고 2월말 귀국.

▲金周瑰(74년 師大卒·연동중학교)‖지난3월 조치원 연동중학교로 전근.

▲李熙大(74년 保健大學院卒·大邱韓醫大 學長)‖3월13일 大邱韓醫科大學 事務處長에서 교수들의 투표에 의해 學長에 취임.

▲趙成憲(74년 行政大學院卒·京畿道安城郡守)‖최근 京畿道安城郡守로 임명됐다.

▲李判石(74년 環境大學院卒·內務部地方行政硏修院長)‖최근 內務部 지방행정국장에서 지방행정연수원장으로영전.

▲金錫俊(75년 行政大學院卒·梨花女大 敎授)‖美國캘리포니아대학교 대학원에서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이화여대 교수로 전임했다. 그리고 영문저서「신흥공업국발전에서의 국가와 공공정책」을 출간했다.

▲權奇成(79년 行政大學院卒·商工部輸出課長)‖최근日本 東京駐在官에서 상공부수출과장으로 전보.

▲吳文儒(86년 大學院卒·濟州大敎授)‖최근 교수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장으로 선출됐다.

掲示板

結婚

▲兪碩鎭(44년 醫大卒·本會理事·베드로신경정신과원장)‖막내아들 태익군 5월9일 오후2시 혜화동 성당.

▲李興鍾(58년 師大卒·예일여중교사)‖長男 揆仁군·4월22일 오후1시30분 잠실 롯데월드內 롯데예식장.

스트레스 發散法

健康교실 ㉔

洪 文 和
〈37년 藥大卒〉
母校명예교수

현대인을 「半健康人」이라고 형용하는 말이 있다. 전에 비하면 물질적인 생활이 풍요하게 되어 「衣·食·住」에 이렇다 할 불편이 없고, 막상 진찰을 받아보아도 이렇다할 병은 없다고 하는데도 건강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식욕, 섹스를 비롯하여 몸의 컨디션이 무어라고 꼬집어서 지적은 할수 없지만 하여튼 개운치가 않다. 몸의 여기저기에 일정하지 않게 불쾌한 증상이 생겼다없어졌다 하는 상태를 不定愁訴症이니 自律神經失調症이니 하는 막연한 말로 형용하고 있

매일 같은 일을 되풀이 하다보면 권태감도 생기게 마련이다. 하다 못해 가족들마저도 옛날처럼 家父長제도에의 해서 통솔되는 상태가 아니고 모두 제멋대로 이면서 불평불만을 지니고 있다. 이런 상황 아래서 매일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생활은 고달프고 스트레스에 쌓이게 마련이다.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풀어가야 할텐데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는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차라리 무책임하게 되는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는데, 진지하게 살려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더많이 받게 된다. 현대는 진지한 사람의 受難時代라고 할 수 있다.

스트레스가 결국은육체에도 지장을 주어 병

이 생기게 한다. 그중에서 가장 뚜렷한 것이 스트레스궤양이라고 하여 위·십이지장에궤양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을 매니저병이라고도 하여 책임이 무거운 중간관리층인매니저들에게 흔히 생긴다는 뜻이다. 소화불량, 설사, 변비증등의 소화기계통의 증상을 비롯하여 심장이 두근거리는 신경성 심장병이라든가 당뇨병등도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생기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는 이와 같이 몸에 해로운 작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적당한 스트레스는 도리어 몸과 마음에 자극을 주어 생활에의 욕이 생기게 하는 작용도 한다.

스트레스와 共存하는 생활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 평범한 보통사람들인 샐러리맨 남성들의 스트레스 解消法을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욕 ②담을 참는다 ③포스로 열중하여 딴것을 잊도록 한다 ④친한 친구에게 터놓고 통사정을 한다 ⑤술을 마신다 ⑥취미생활에 몰두한다 ⑦여행을 한다 ⑧신앙으로 이겨낸다 ⑨화투, 마작등의 놀음을 한다 ⑩자기차로 드라이브를 한다. 여성들의 스트레스 해소법으로는 ①친구들과의 잡담 ②여행 ③스포츠 ④식사 ⑤수면등이다. 여성들이 날씬하게 되려고 하면서도 식사조절을 못하여 뚱보가 되는 것은 식욕을 충족시키는 것이 스트레스해소법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친구들과의 잡담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수도 있지만 잡담이 도리어 새로운 스트레스의 씨앗이 되는 경우도 있다. 하여튼 건강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스트레스의 發散」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發散法이냐는 것은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사람에 따라 다르다. 가장 필요한 것은 체면으로 스스로를 은폐하고 있지 말고, 자기를 적나라하게 노출시키는 것이다. 이를테면 천진난만한 어린애들처럼 자기 성격대로 행동을 하여 보는 것이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여 본다는 것도 발산법이 될수 있다. 그와 동시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에 열중하는 것도 필요하다.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면 한평생이 천국이요, 자기가 하는 일을 의무로 생각하면 한 평생이 지옥이다』라는 말이 있다. 자기 하는 일에 보람과 긍지를 느끼면 피로한것도, 시간가는 줄도 모르게 마련이다. 현대인은 자기의 직업을 긍지와 보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의 생활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고달프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이 아닐까.

趣味生活

바둑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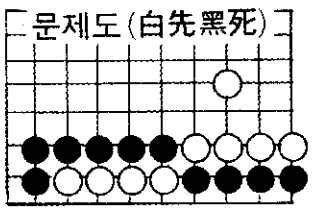
—朴 治 文
〈79년 人文大卒·世界日報記者〉

①

第一線의 手相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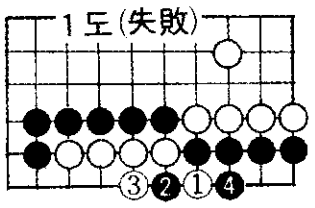
바둑에선 제4선을 勢力線 제3선을 實利線 제2선을 死線이라 부른다. 제1선을 敗亡線 이상은 공허하고 5線 4線과 3線이 세력과 실리의 분기점이며 그 밑으로 가면 패망과죽음이 기다린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布石時代의 얘기다. 바둑이 중반의 험로에 이르면 공중전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돌은 敗亡線이든 死線이든 거리낌없이 넘나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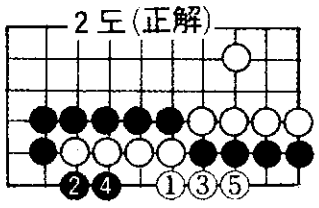
〈문제도〉…지금 死線에서 手相戰이 벌어졌다. 黑도 4수이고 白도 4수이므로 어느쪽이든 먼저 두는 쪽이 이긴다. 白先手로 黑을 반드시 잡는 법은 무엇일까.

〈1도〉…中級의 실력자라도 〈1도〉 白1로 제꺽 죽혀버리기 쉽다. 그러나 黑2로 먹여치고 白3 때릴 때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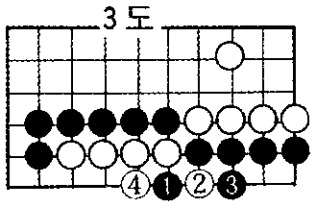


로 막으면 패가 되고 만다. 이래서는 다 이긴 바둑도 순식간에역전되고 만다.

〈2도〉…이처럼 白1로 곱게 빠지는 것이 1線에서의 手相戰의요령이다. 이후 서로 수를 줄여가면 白5에이르러 黑이 잡히게된다. 이 수단은 알고보면 참 쉽지만 실전에선깜박하기 쉽다. 실제로60년대 아마추어 바둑계의 最强者였던 晋洪命씨는 프로의 등용문인 入段大會에서 〈1도〉와 같은 실수를 범하고말았다. 당시 그는 이판만 이기면 入段이 확정되는 찰라였고 바둑도 크게 우세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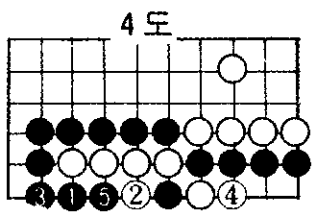


그러나 〈1도〉 白1과 똑같은 실수로 거저 잡을 패를 만들었고 여기서의 손해로반집을 지고만다. 이후 晋洪命씨는 끝내 프로입단에 실패하고 말았으니 그의 가슴속엔 〈2도〉 白1의 수가 통한의 한수로 지금도 남아있을 것이다.



〈3도〉…이번엔 黑쪽이 先手인데 1로 젖혔다고 가정해보자. 과연 이경우도 패가 될까? 물론 黑이 3으로 때린다면 白4로몰아 패가 될 것이다. 과연 그냥 잡을 수는 없을까?

〈4도〉…이 경우엔 黑1로 그냥 젖히는수가 성립된다. 그러므로 〈3도〉 黑3은 〈1도〉白1과 똑같은 유형의실착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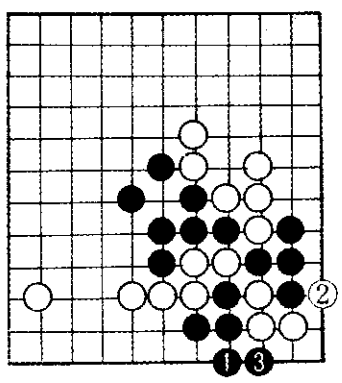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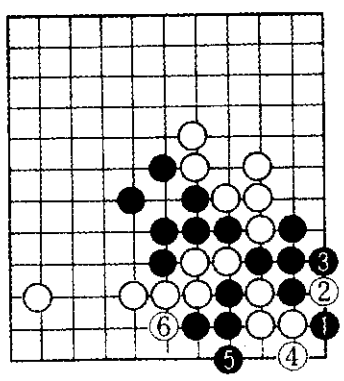
1線에서의 手相戰은 간단한것 같지만 이처럼 복선과 함정이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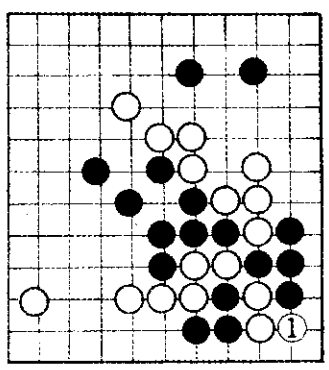
이번엔 위의 지식을 응용하여 高級의 문제를 풀어보자.

〈5도〉…이 형태는 일본의 林海峯9단과梶原9단의 실전에서 등장한 형태다. 林9단이白1로 꼬부린 시점인데 黑의 최선은 어느것일까.

〈6도〉… 삼식적인수는 6도 黑1이다. 그러나 이것은 白2·4에 의해 양자충에 걸린 黑이 전멸해버린다.







〈7도〉…黑1. 이처럼 곱게 빠지는 수가 당시 絶妙手라고 극찬받은 유일한 해결책. 이수에 의해 白은 어떤 수단도 봉쇄되고말았다.

그러나 바둑이란 묘한 것. 絶妙手를 둔 梶原9단은 이관을 完敗하고 말았으니 『高手는 妙手로 이기지 않고평범함으로 이긴다』는 教訓을 실감하지 않을수 없었다.

年會費 내주신분

理事 ‖ 2월19일~2월25일
會員 ‖ 2월18일~2월25일

※ 人名밑의 괄호안 숫자는 각 동문들의 卒業年度임.

理事

◇家政大學

▲玄溫剛(66) 인하대가정대교수

◇工科大學

▲桂 濚(59) 동국제강㈜부사장
▲孔大植(60) 대한섬비공업㈜대표
▲金 演(56) 아주화금공업사장
▲金 澈(56) ㈜대기사장
▲金 勳 제네랄일렉트릭㈜부사장
▲金寬旭(68) 대호건록연구소대표
▲金明根 극동건설㈜부회장
▲金炳珍(54) 대림엔지니어링㈜사장
▲金鳳完(49) 여수에너지㈜고문
▲金相演(51) 한국에너지협회상임이사
▲金錫柱(54) ㈜건우통상대표
▲金兌燮(57) 신아조선공업㈜사장
▲南敬熙(56) 울산화학㈜이사
▲閔景植(55) 한국전력기술㈜사장
▲朴相鎬(57) 력키유화㈜사장
▲朴承宰 샘표식품공업㈜부사장
▲朴佑炳(56) 국회의원
▲朴仁均(51) 다래부역㈜회장
▲朴昌淳(68) 강신산업㈜사장
▲白德鉉(57) 포항종합제철㈜부사장
▲白成河(66) 신부림제지㈜공장장
▲徐立圭(61) 우림콘크리트공업㈜대표이사
▲成樂常(51) 동아건설㈜부사장
▲尹仁雨(68) 동양맥주㈜이사
▲尹鍾求(56) 선일기업㈜사장
▲李逢雨(53) 한국코트렐공업㈜사장
▲李東春(57) 대명산업사사장
▲李相龍(54) 동원산업㈜사장
▲李相鎬(70) 서호전기㈜대표
▲李鍾根 극동석유㈜부사장
▲李鍾玹(51) ㈜유진기연사사장
▲李俊植(61) 한국과학기술원교수
▲李昌甲 전동남대학교총장
▲林炳珠(56) 남경상사사장
▲張基玉(58) 한국전력건설사업단장
▲張東根(62) 동양나이론㈜이사
▲鄭普永(44) 롯데제과㈜대표이사
▲崔秉柱(57) 천도상사사장
▲裵相基(65) 삼지상사㈜대표
▲韓廷燮(55) 태평양화학공업㈜부회장

◇農科大學

▲姜信圭(75) 동해펄프㈜기술과장
▲金南龍(57) 전한국낙농육우협회전무
▲金祥源(56) 대법관
▲金榮鎭(57)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朴來敬(57) 농촌진흥청작물시험장장
▲朴振煥(62) 농협대학장

◇文理科大學

▲權赫祚(69) 동양정밀㈜부회장
▲金榮洙(64) 연합광고㈜사장
▲金榮作(64) 동북아문화연구원장
▲金佑鉉(61) 기아기공㈜상무
▲金鍾球(62) 건설공제조합이사장
▲金學詔(59) 도림개발㈜사장
▲金洪錫(49) 고려증권㈜고문
▲李仁鎬(58) 산림청임업연수원장
▲李在起(57) 국제종합건설㈜전무
▲田用和(51) 경남농촌진흥원장
▲鄭一永(68) 국회의원

◇法科大學

▲朴必載(54) 토지개발공사기술연구부장
▲尹天柱(47) 전서울대총장
▲李文弘(53) 선일상선㈜상임고문
▲李相洙(49) 과학기술원교수
▲李慈憲(58) 국회의원
▲李忠熙(58) 한국표준연구소부장
▲李漢彬(49) 전부총리·경희대교수
▲河泳準(60) 효성금속㈜사장
▲康容植(63) 문공부차관
▲權秉順(58) K·B㈜사장
▲金吉永(55) 성창기업㈜전무
▲金明洙(57) 제일은행상무이사
▲金錫營(55) 태양종합상사대표
▲金永均(49) 중앙선관위위원
▲金永奇(58) 롯데칠성㈜이사
▲金仁煥(60) 동양플리에스터㈜사장
▲金濟浩(56) ㈜이스턴여행사회장
▲文鴻柱(40)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
▲閔丙國(63) 변호사
▲朴演時(57) 제일은행검사부
▲朴鍾植 명동법무법인대표

◇師範大學

▲金南祚(51) 숙명여대교수
▲金鳳守(50) 서울교대교수
▲文炳寬(54) 한영해운대표
▲閔辟寶(56) 고대경리과장
▲朴鍾達(53) 광주평화기업사대표
▲朴海俊(60) 소설가
▲卞柱仙(64) 대림성모병원
▲孫晋奭(56) 오아시스레코드사장
▲柳聖圭(59) 서울한의원장
▲李秉根(58) 대검공판송무부장
▲李錫祐(54) 한국해양기술소대표
▲李桓儼(58) 백제문화연구원고문
▲全八根(52) 원광대부총장
▲鄭然優(46) 기아기업사장
▲鄭元植(54) 문교부장관
▲崔容準(65) 천재교육출판사사장

◇商科大學

▲姜東奭(65) 국민은행종로5가지점장
▲姜晋佑(56) 롯데햄우유㈜사장
▲高光直(58) 전북은행장

◇醫科大學

▲公正坤(59) 동양나이론전무
▲金新正(59) 두산식품㈜사장
▲金榮煥(58) 전열화학공업㈜회장
▲金鍾大 대전피혁㈜회장
▲金鍾昱(62) ㈜전방부사장
▲金志貞(67) ㈜고려당사장
▲金昌震(62) 풍강금속공업사장
▲金恒德(65) ㈜유공사장
▲南基萬(53) 금성반도체㈜전무
▲朴家慶(58) ㈜금강사장
▲朴秀煥(59) 력키금성기조실부사장
▲朴鍾河(33) 전영창악기회장
▲朴宗漢(53) 단국대학교교수
▲裵柱元(59) 아신해운㈜사장
▲石學鎭(62) ㈜코오롱건설사장
▲孫基昌(62) ㈜화승기조실장
▲孫吉丞(63) 선경합섬㈜기획실장
▲孫東皓(57) 조흥은행상무
▲孫尙摸(57) 효성중공업㈜사장
▲宋世昌(57) 제일모직㈜사장
▲宋宙植(49) 한국볼트공업㈜사장
▲愼東宰(58) 교보문고사장
▲申明秀(64) 동방유량㈜회장
▲申世吉(61) 삼성물산㈜부사장
▲申熙澈(63) 금강제화㈜사장
▲沈晶求(57) 국회의원
▲嚴鎰永(57) 중권감독원상임위원
▲金潤宰(58) 한국유리㈜전무
▲嚴興燮(52) 동남증권고문
▲柳遠榮(63) 한국전자㈜회장
▲尹佐鉉(58) 엘지에이드부사장
▲李康弘(66) 크로바상사사장
▲李祥根(57) 대미은행장
▲李相天(56) 대한광업진흥공사감사
▲李相哲 국민은행장
▲李相學(63) ㈜서광상무
▲李壽益(65) 제일냉동식품㈜사장
▲李順石(63) ㈜선경사장
▲李升雨(57) 나경상사㈜대표이사
▲李承潤(65) 국회의원
▲李容九(63) 한비산업대표
▲李全培(73) 전원산업사장
▲李鍾恩(37) 전국제로타리365편집인
▲李泰浩(42) 대우투자자문회사회장
▲李弼坤(65) 삼성물산㈜사장
▲林東昇(62) 삼성경제연구소소장
▲張錫靖(65) 동력자원부자원정책실장
▲全貢洪(58) ㈜동양고무판매부사장
▲全延九(56) 변호사
▲全河吉(56) 한국감정원상무이사
▲鄭鎭鎬(57) 한외종합금융상임감사
▲趙炳海(57) 서울항료㈜대표이사
▲秋世煥(56) 쌍용제지㈜상임감사
▲韓英國(54) 롯데제과㈜상임감사
▲許丙夏(62) 우신시스템사장

◇獸醫科大學

▲金範來(56) 농수산부동물검역소장
▲金旿燮(70) 해태유업관매관리실장
▲尹志炳(58) 중앙가축전염병연구소
▲趙明來(74) 수원갈촌동물병원

◇藥學大學

▲金鎭宇(58) 신림당약국
▲李東源(71) 새한제약㈜사장
▲全鳳侃(60) 태평양제약㈜전무

◇音樂大學

▲金鳳任(59) 경희대교수
▲白樂皓(49) 서울대음대학장
▲李在淑(63) 서울대음대교수
▲曺祥鉉(51) 서울뮤직크럽회장

◇醫科大學

▲郭一龍(53) 서울대의대교수
▲金洛律(53) 부천세일병원
▲閔丙哲(52) 고려대부속구로병원장
▲朴壤實(60) 박산부인과의원장
▲朴永夏(50) 을지병원이사장
▲白相憲(59) 서울의대교수
▲宋圭鉉(44) 동인의원장
▲申晃雨(50) 서울의대산부인과
▲沈英輔(61) 심영보홍자선의원
▲廉澤龜(49) 염안과
▲李奎恒(60) 안양신경정신병원장
▲李純鎬(63) 인제의대소아과
▲李鍾贊(53) 이종찬외과의원장
▲蔡範錫(58) 서울의대생화학교수
▲崔德永(64) 중앙대부속신경외과
▲崔虎容(64) 최산부인과
▲韓斗鎭(56) 한국병원장
▲韓萬青(59) 서울의대제2부원장
▲韓鏞徹(56) 서울대학교병원장

◇齒科大學

▲金圭鎭(70) 김규진치과의원장
▲金東順(44) 영신치과의원장
▲金龍雲(68) 김용운치과의원장
▲金海洙(49) 김해수치과의원장
▲孫光雄(66) 손광웅치과의원장
▲宋英鎬(61) 송치과의원장
▲安相奎(66) 안상규치과의원장
▲李丙台(67) 이병태치과의원장
▲李種文(63) 이종문치과의원장
▲李昌熙(53) 이창희치과의원장
▲朱寬哲(65) 의당치과의원장

◇經營大學院

▲金萬君(69) 덕원공영㈜사장
▲金任植(70) 동의대학재단이사장
▲李鍾烈(72) 한일탱크터미널㈜사장
▲李徹永(70) 범한화재해상보험사장
▲河龍彩(72) 미원통상사장

◇保健大學院

▲金秀哲(67) 김수철성형외과원장

◇行政大學院

▲姜敏求(62) 유성관광대표이사
▲金基炳(67) 롯데관광사장
▲金昇政(68) 유공해운부사장
▲金榮東(77) 국민카드수석부사장
▲金友淳(73) 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金漢坤(71) 농림수산부양정국장
▲孫守益(72) 국토개발연구원자문위원
▲申基獻(66) 세풍㈜부사장
▲李英浩(65) 명지실전교수

◇司法大學院

▲申雄湜(66) 변호사

□會員납부에 뜨거운 精誠을…

동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年會費가 순조롭게 入金되고 있읍니다. 奬學사업을 비롯한 母校돕기에 많은 財源이 소요되고 있는 同窓會에서는 가급적이면 各會員들께서 앞당겨 會費를 내주시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母校 발전과 동창회의 活性化에 도움을 주시는 뜻으로 여기시고 뜨거운 참여와 협조를 기대합니다.

－會費내역－

- 一般會費……1만원
- 理事會費……5만원
- 常任理事……10만원
- (회원 3천명 이상)……20만원
- 監　事……30만원
- 副會長……50만원
- 會　長……백만원

名譽會員

◇人文大學

고병익	김재원
김계화	김재홍
김동욱	김정명
김창환	백낙준
이가원	양주동
이기백	이병도
이상백	이숭녕
이홍직	조동걸
조좌호	조지훈

◇社會大學

강정모	김계동
김두헌	김성칠
김증한	김진만
김진만	김진만
김진만	김진만
김진만

◇商科大學

▲황기연 ▲홍해선㊻ ▲홍성진㊻ ▲허신식㊼ ▲한종하 ▲한 영㊸ ▲최정옥 ▲최병호㊶ ▲최근두㊷ ▲최관렬㊿ ▲지금수㊿ ▲조은분㊷ ▲조용탄㊾ ▲조순옥㊷ ▲조규대㊺ ▲정호영㊹ ▲정범㊹ ▲정찬문㊸ ▲정종호㊹ ▲정영숙㊹ ▲정순영㊿ ▲정복술 ▲정기준 ▲전효준㊹ ▲전진우㊹ ▲전문표㊺ ▲전동수㊷ ▲임복희㊶ ▲이태웅㊺ ▲이중석㊸ ▲이종덕㊹ ▲이정현㊷ ▲이정식㊻ ▲이일환 ▲이원우㊾ ▲이영일㊻ ▲이슬옥㊻ ▲이병수 ▲이덕자㊸ ▲이기종㊿ ▲윤필희㊻ ▲유윤재㊾ ▲유명수㊺ ▲유근숙㉚ ▲양기석㉑ ▲심이준㊺ ▲신용필 ▲신동철㊸ ▲송혜자㊿ ▲송인복 ▲송관식 ▲손상남㊽ ▲성홍경㊶

▲김봉한㊿ ▲김납완㊺ ▲김규석㊾ ▲김광선㊶ ▲김경두㊹ ▲권태명㊹ ▲권영달㊺ ▲구정희 ▲고재호 ▲고승범 ▲강용규㊿ ▲강신용㊷ ▲강봉균㊽

▲김상운 ▲김대철㊿ ▲김기일 ▲김광진㊿ ▲김관영 ▲권태원 ▲권이성 ▲구하서㊶ ▲곽 헌㊷ ▲고을상㊻ ▲강태석 ▲강연규㊶ ▲강석권

▲황승희㊿ ▲홍해익㊸ ▲홍성화㊸ ▲현순영㊼ ▲한철규㊼ ▲한성홍 ▲태영희㊵ ▲최영식㊽ ▲최병주㊿ ▲최광만㊽ ▲진쾌현㊻ ▲조혜자㊹ ▲조용완 ▲조예행㊵ ▲조숙선 ▲정희재㊸ ▲정하신㊶ ▲정창오 ▲정진구 ▲정일섭㊾ ▲정순호 ▲정봉익 ▲정만진㊺ ▲정기언㊻ ▲전해인㊽ ▲전은선㊶ ▲전만길 ▲임형진 ▲이희주㊿ ▲이찬근㊹ ▲이의환㊺ ▲이원범㊿ ▲이신복 ▲이상재㊶ ▲이노연 ▲은경자㊸ ▲윤이중 ▲유옥찬㊻ ▲유덕준㊹ ▲위재규㊶ ▲안동규㊸ ▲신정옥 ▲신용삼㊽ ▲신기명 ▲송봉홍㊹ ▲송보주㊼ ▲손임녀㊿ ▲손병규㊺

▲전주신 ▲장만희㊶ ▲임현섭㊶ ▲임석현㊾ ▲이회련㊹ ▲이창옥㊶ ▲이중희㊶ ▲이종수 ▲이정권㊸ ▲이재동㊶ ▲이원기 ▲이영상㊺ ▲이시영㊷ ▲이승후 ▲이승우 ▲이상규 ▲이문상 ▲이동재 ▲이년우㊿ ▲이기용 ▲이관규㊺ ▲윤원식㊺ ▲윤세극㊶ ▲윤두현㊷ ▲유형벽㊽ ▲유철현㊼ ▲유우형 ▲유방창㊺ ▲유경선㊷ ▲오창규 ▲여구연㊻ ▲안영록 ▲안광신㊸ ▲신총열㊿ ▲신영걸㊻ ▲신동재㊽ ▲송계충㊽ ▲손석주㊷ ▲손명환㊺ ▲성덕경㊷ ▲선종승㊺ ▲서진석 ▲서동은㊹ ▲백승해㊿ ▲백낙민㊹ ▲박태하㊹ ▲박춘택㊹ ▲박종환㊼ ▲박인철 ▲박용옥 ▲박명근㊾ ▲박기능 ▲민창기 ▲민병쾌㊻ ▲문성철 ▲남상빈㊿ ▲나서영 ▲김홍배㊹ ▲김천옥㊶ ▲김진화㊺ ▲김준환 ▲김종순 ▲김재윤 ▲김용술㊷ ▲김영호 ▲김영진㊶ ▲김연조㊷ ▲김선호㊷ ▲김도연㊼

▲정방언㊽ ▲정광홍㊷ ▲장윤상 ▲장기오 ▲임용둔 ▲인수환㊽ ▲이창준 ▲이지언㊺ ▲이좌영㊷ ▲이종기 ▲이재환㊻ ▲이장호㊾ ▲이용언㊺ ▲이영규㊺ ▲이승섭㊹ ▲이승중㊹ ▲이상윤㊻ ▲이상건 ▲이락준㊶ ▲이덕형㊽ ▲이기호 ▲이근희㊻ ▲이 섭㊹ ▲윤양현㊾ ▲윤병길㊽ ▲윤가원㊺ ▲유충식 ▲유창록㊶ ▲유성재㊷ ▲유문희㊼ ▲우용해㊶ ▲염 발㊺ ▲양희문 ▲안승철 ▲심근섭㊽ ▲신종우㊷ ▲신성환 ▲송달호㊿ ▲손홍규㊺ ▲손병루㊹ ▲성옥기 ▲성낙교㊾ ▲석대중㊿ ▲서상달㊻ ▲백승조㊼ ▲배진성㊹ ▲박태영㊻ ▲박창규㊶ ▲박종도㊶ ▲박은진㊽ ▲박영도㊹ ▲박동순㊶ ▲박 승㊶ ▲민병태 ▲문철한㊿ ▲마문호㊶ ▲나중헌㊽ ▲나봉균㊷ ▲김철홍㊻ ▲김창선㊶ ▲김진태㊷ ▲김주성㊼ ▲김재헌㊺ ▲김욱한㊹ ▲김용기㊷ ▲김영진㊶ ▲김영상㊶ ▲김세우㊾ ▲김봉규㊷

◇獸醫科大學

▲황상교㊼ ▲홍성유㊶ ▲허재원㊿ ▲허 석㊺ ▲한의수 ▲하기주㊺ ▲최민환㊷ ▲조용섭 ▲조상호㊸ ▲조규재㊹ ▲조관현㊶ ▲정형진㊸ ▲정정숙 ▲정연필㊶ ▲정성환 ▲정상용㊽ ▲정둔철㊼

▲홍순언㊻ ▲한강의㊽ ▲최치선㊺ ▲김양배㊷ ▲채동규㊳ ▲조철원㊸ ▲조우열 ▲이진수㊻ ▲이승본 ▲이대희㊿ ▲양중익㊿ ▲신복영㊻ ▲송인학㊼ ▲변온성㊻ ▲백덕우㊼ ▲박종탁㊼ ▲박용춘㊺ ▲민경원㊺ ▲노일협㊽ ▲김현욱㊶ ▲김태희㊿ ▲김탁영 ▲김영희㊺ ▲김규원㊻ ▲곽영의

▲김일륜 ▲김수경㊾ ▲권혁영 ◇音樂大學 ▲홍승철㊼ ▲홍기정㊹ ▲최호강㊻ ▲최석상㊷ ▲최경희 ▲주하유㊹ ▲조인홍 ▲임중기㊿ ▲이월희 ▲이만재 ▲오익상 ▲백인복 ▲박현배㊾ ▲박정영㊶ ▲박재섭 ▲박세진 ▲도태준㊶ ▲김홍대㊾ ▲김평기㊻ ▲김태봉㉝ ▲김장숙 ▲김석기㊸ ▲김규섭㊻

▲김정수㊺ ▲김인숙㊷ ▲김명주㊼ ▲홍순철㊼ ▲최철순㊿ ▲정구보㊶ ▲이종화 ▲이장락㊾ ▲이길우㊾ ▲이 완 ▲이명우㊺ ▲이정욱㊽ ▲이상룡㊾ ▲진금섭 ▲차완보 ▲최일형 ▲최창욱㊿ ▲한동수㊺ ▲홍석찬㊿ ▲홍영표㊽ ▲홍순국㊾ ▲정태규㊿ ▲장광호 ▲송기문㊺ ▲성기문㊽ ▲박종배㊼ ▲박승도㊿ ▲류기승㊹ ▲남궁선㊶ ▲김창호㊼ ▲김용환㊷ ▲김동환㊷ ▲김영덕㊺ ▲김용식 ▲김성덕㊶ ▲고영채 ▲강신일㊹

◇藥學大學

▲황화자㊹ ▲홍순덕㊹ ▲한은재㊹ ▲추숙옥 ▲채치성㊿ ▲정인선 ▲장혜숙㊾ ▲이희옥 ▲이혜선㊹ ▲이학주㊿ ▲이옥염㊼ ▲이병조㊺ ▲유원일㊻ ▲오희옥㊹ ▲양연섭㊺ ▲백원정㊾ ▲김태화

▲박정숙㊹ ▲박원제㊻ ▲박웅재㊹ ▲이명철 ▲윤용수 ▲서정기㊸ ▲김종환㊼ ▲김용락㊻ ▲한대희 ▲조수헌㊸ ▲박영석㊽ ▲박상용 ▲박문희 ▲박길선㉝ ▲박경호㊺ ▲민화진 ▲민성원 ▲노효근㊻ ▲김형곤㊼ ▲김종억㊼ ▲김정진㊼ ▲김원석 ▲김영진㊷ ▲김영규 ▲김순희㊻ ▲김선원㊷ ▲김명아 ▲김동창 ▲김도진㊾ ▲김근우㊼ ▲김광수㊿ ▲김 권㊷ ▲권오성㊻ ▲권경철㊽ ▲홍영표㊽ ▲한동수㊺ ▲최창욱㊿ ▲최시룡㊾ ▲이정빈㊷ ▲신희철㊶ ▲서유헌㊸ ▲박용현㊽ ▲노준량㊻ ▲김주현㊶ ▲김용식 ▲김성덕㊶ ▲고영채㊹

▲황화자㊹ ▲홍정표 ▲현병화 ▲한명희㊹ ▲최문호㊻ ▲채정희㊷ ▲정길선 ▲임재원㊿ ▲이효순㊽ ▲이해식㊾ ▲이은호㊷ ▲이상용㊻ ▲이근호㊼ ▲유순희㊷ ▲오진옥㊷ ▲심송화 ▲박정자

◇醫科大學

▲박정미 ▲박은호 ▲박원익㊺ ▲박우택 ▲이건욱㊿ ▲심영수㊿ ▲박철규㊼ ▲김종선 ▲김수태 ▲최 황㊾ ▲박용섭 ▲박세식 ▲박병문㊷ ▲박동건㊼ ▲박길선㉝ ▲박경호㊺ ▲민화진 ▲민성원㊺ ▲문성우㊻ ▲김형구㊻ ▲김치원 ▲김재홍㊻ ▲김종만㊾ ▲김정진㊼ ▲김원동㊾ ▲김영근㊶ ▲김수경㊽ ▲김상우㊺ ▲김득구㊺ ▲김동섭㊻ ▲김대영㊼ ▲김광원㊼ ▲김경래㊿ ▲김 권㊷ ▲권혁수㊸ ▲권기택 ▲권경표㊽ ▲구본봉㊺ ▲홍석찬㊿ ▲하재구㊽ ▲최일형 ▲차완보 ▲장봉민㊸ ▲이명현㊼ ▲이상룡㊾ ▲이성춘㊼ ▲이봉하㊺ ▲이병철㊷ ▲이명혜㊾ ▲이능유㊼ ▲이근식 ▲이건용㊺ ▲윤종영㊷ ▲윤병철㊷ ▲유태연㊻ ▲유종근㊻ ▲김홍기㊻ ▲유언호㊻ ▲임정일㊾ ▲오주익 ▲오재환㊸ ▲오육근㊺ ▲오순환㊷ ▲오세오 ▲양준모㊿ ▲안영모㊺ ▲신현정 ▲신동휘 ▲송영기㊸ ▲손 철㊺ ▲서홍규㊸ ▲서정후 ▲변종훈㊺ ▲백낙형㊽ ▲배종화㊺ ▲박희옥㊿ ▲박정자㊼

▲황준식 ▲홍두루미 ▲홍종정용㊺ ▲홍용근 ▲허 현㊼ ▲한종희㊺ ▲한예택 ▲한국남 ▲하권익㊸ ▲최창운 ▲최윤식㊾ ▲최명재㊹ ▲최봉호㊼ ▲차철환 ▲주영재㊴ ▲주양자 ▲조용일㊽ ▲조수경㊸ ▲조덕환㊹ ▲정혜림㊸ ▲정이관㊺ ▲정문현㊸ ▲전영택㊹ ▲장동을㊶ ▲임 영 ▲이철규㊷ ▲이창환㊾ ▲이종만 ▲이정균 ▲이승훈㊿ ▲이수동㊺ ▲이상온㊼ ▲이봉하㊺ ▲이병철㊷ ▲아명혜㊾ ▲이능유㊼ ▲이근식 ▲이건용㊺ ▲윤호영 ▲윤병철㊷ ▲유태연㊿ ▲유종근 ▲김홍기㊻ ▲유정일㊾ ▲오주익 ▲오재환㊸ ▲오육근㊻ ▲오순환㊷ ▲오세오 ▲양준모㊿ ▲안영모㊺ ▲신현정 ▲신동휘 ▲송영기㊸ ▲손 철㊺ ▲서홍규㊸ ▲서정후 ▲변종훈㊺ ▲백낙형㊽ ▲배종화㊺ ▲박희옥㊿ ▲박정자㊼

◇齒科大學

▲홍종호㊼ ▲김 헌㊼ ▲고현권㊼ ▲강영자㊸ ▲황대용㊹ ▲홍종정용㊺ ▲홍용우㊷ ▲홍종관㊹ ▲함용주㊺ ▲한종수㊼ ▲한두호 ▲하재인㊿ ▲최형석㊻ ▲최봉호㊼ ▲최덕영㊹ ▲최진숙 ▲지선규㊻ ▲주영식㊻ ▲조창원㊿ ▲조영희 ▲조성수㊻ ▲조덕환㊹ ▲정희영㊼ ▲정형배 ▲정요한㊼ ▲전호성㊷ ▲전영택㊹ ▲장영길 ▲임영택㊼ ▲이화영㊻ ▲이진오㊹ ▲이정주㊺ ▲이왕재㊷ ▲이승영 ▲이수동㊼ ▲이성춘㊼ ▲이봉원㊽ ▲이명근 ▲이광호 ▲아 영㊽ ▲유지문㊿ ▲유인협 ▲유영철 ▲유 준 ▲임재훈㊽ ▲오정성㊸ ▲오인혁㊷ ▲오연상 ▲오수정㉒ ▲얼규현 ▲양원용㊺ ▲심동원㊼ ▲신순현㊽ ▲송영옥㊿ ▲손병선㊽ ▲선덕영㊾ ▲서창해㊾ ▲서인석㊽ ▲백륙원㊹ ▲백구현㊺ ▲방영주㊶ ▲박향준㊶

▲김민형㊺ ▲김규완㊿ ▲권태국 ▲강희재 ▲최동광㊾ ▲최석문㊶ ▲차혜영 ▲최금자㊻ ▲최경영 ▲최기채㊹ ▲최부병㊶ ▲최성근㊼ ▲최영희㊷ ▲조종만 ▲조한국㊽ ▲조기성㊼ ▲조성환㊽ ▲정낙연㊼ ▲정경수㊿ ▲정광준㊶ ▲전경근 ▲전호성㊷ ▲장봉학 ▲장기산㊶ ▲임성수㊻ ▲이희조 ▲이준섭㊽ ▲이정태 ▲이용우㊻ ▲이영희 ▲이상필㊻ ▲이병한 ▲이상철㊶ ▲이상섭㊼ ▲이선복 ▲이원봉 ▲이용렬㊽ ▲이종복㊹ ▲이재명㊾ ▲이재원㊻ ▲이진웅㊺ ▲이효계㊽ ▲이형기㊿ ▲이 현㊼ ▲이 호㊶ ▲이 헌㊶

同門作家 短篇選

조조한 소나기 (上)

朴 順 女

▲咸南出生 ▲50년 母校師大英文科卒 ▲主要作品으로 「어떤 巴里」「七法全書」「숲속에 가슴속에」「로렐라이의 記憶」 등 多數 있음.

아내를 따라서 뒷산에갔던 승재는 진짜로 난을발견했다. 생난이 정말 있긴 있구나. 그는 소리를낮춰서 아내를 불렀다.

「이봐이봐 이리 와봐. 난이 있다구.」

「정말 있어요?」

나물을 캐다 말고 아내가 왔다.

「봐.」

「이게 난이예요? 풀잘 네요.」

「풀이 아니야. 이게 풀이고 이건 난이야.」

이렇게 해서 승재의 난 캐기가 시작됐다.

쉬는 날이 되면 그는소주 한병을 꿰차고 뒷산으로 올라갔다. 풀이기도 하고 나무이기도 한 낮으막한 산들 사이에서 고놈의 난은 숨어서 살았다. 그러니까 양지가 되기도 하고 음지가 되기도 하는 곳에서 저보다 키큰 식물 사이에서 사는 난은 여름에는 습기가 많고 겨울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자리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숨어 있는 놈을 찾아내는 일은 오기 싸움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승재는 그런 거창한 마음에서 난캐기에 나서는 것은 아니였다. 고놈을 한번 캐보니까 아주 재미가 나서 쉬는 날이면 자주 산에 가고 싶어지는 것이였다. 이 성에 빠져 들었을 때처럼 그렇게 승재는 난에 빠져 들었다.

그러나 난이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둥제 조했다. 사람이 이렇게 밖에 살 수 없나. 지난 날 어떤 날의 승재는 맥주초 할 수는 없는 일이였다.

음을 보아도 그랬고 앞으로 올 날도 또 뻔하고, 나이는 자꾸 먹어가는데 월급날 하루를 위해 나머지날을 살고 있는 쌤이였다. 어쩌다 가족과 함께 외식이나 하면 그날이 제일 즐거운 날이 되고, 건전한취미 생활이 필요하다고 누군가가 말했겠다. 남자만이 아니고 여자도 중년에 들어서면서 사람이 이렇게밖의가 생기기 시작하면 사회에 살 수 없나 하는 직장을 어디로 옮기고 또 스카우트되어 갔는데 그는 자기 직장이 삼촌 소유이기나 한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게 다 소신이 있기때문이라구.」

남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 말은 무능하다는 소리 같았다.

5년만, 5년만, 그러면아내와 두 아이가 의지할만한 최저의 터전은 마련되겠지. 그렇게 되면 이놈의 직장을 때려엎고 싶었다. 그리고는 인생의 전열을 다시한번 가다듬고 싶었다. 막연하지만 승재의 가슴속에는 그런 희망사항이 있었다.

그때까지는 딴마음을 먹지 말아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건전한 취미를 가져야지.

공허병이 도져서 난캐기에 나서지 않았던 승재가 마음을 돌렸다. 그는 낮잠을 자고 싶은 것도 시내로 가볼까 했던 것도 참았다. 그리고는 뒷산으로향했다.

이렇게해서 승재의 난초 붐이 하나 둘 늘어갔다. 승재가 난을 너무 열심히 캐오자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신문을 보니까 자생난이 멸종해가고 있데요.」

승재는 별 반응이 없이 입술로 웃기만 했다. 「자생난보호 같은 거 해야겠던데요.」

그러자 승재가 캐온 난을 들어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길에선는 이런 거한촉에 3백원이라구. 그래도사는 사람이 없어.」

명색이 난인데, 승재는 한촉에 3백원이라는 것이 몹시 마음에안 드는 모양이였다. 그래서다음 휴일에는 버스를 타고 시내의 난집으로 갔다.

난집에는 과연 비싼 난이 수두룩 했다.

「이게 80만원이라구요!」

이렇게 되면 더이상 값을 묻는 것이 허무해졌다. 값이 아무렇지않게 나올 것 같았다.

난초잎 가장자리에 흰줄이 둘러쳐져 있으면 비싸단다. 또 꽃향기가 진동하면 물론 비싸댄다. 한촉에 3백원에도 팔리지 않는 자생난은 이파리에 흰줄도 없고 꽃향기도 없댄다.

이렇게 되면 승재는 또 허무해지는데 그는 7만5천원, 8천원짜리 하나, 7천원, 8천원짜리 어쩌구 어쩌구해서 십만 얼마를 날렸다. 이런 나들이를 여덟번만 하면 80만원짜리 하나를 사는 돈을 날리게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 80만원 쇼크가 어떻게 되나. 이해되나.

7만5천원짜리 난은 그러지 않을래도 애지중지하게 되었다. 돈대로 손이갔다. 그런게 뒷산의 것도,

「이게 7만5천원짜리예요.」 하면 남들은 속았다. 그렇다면 뒷산 것도 7만5천원짜리로 생각하면서 키우면 되는 일이었다. 마음을 그렇게 못먹을 것도없었다.

승재가 7만 5천원짜리 어쩌구 하면서 난얘기로하도 품을 재니까 직장동료들도 한 사람 두 사람 뒷산으로 가게 됐다. 그리고 한번 뒷산에 간 사람은계속 뒷산으로 갔다.

고놈이 숨어 있는걸 발견해 낼 때의 쾌감은 랜찮은 것이였다. 그래서 가져가서 키울만한 자리도화분도 없는데 자꾸 캐게됐다. 이러니 자생난이 멸종할만도 했다.

자생난 보호단체같은 것이 있으면 얼마나 뭣대를 세울까. 그러나 난캐기가 건전한 취미인 것만은 틀림이 없었다. 주색에 빠진일도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쉬는 날을 산에서 보낸다는 것은 고상한 취미중에서도 고상한 취미였다.

하지만 뒷산의 뱀도 땅속에 들어가고 풀숲을 뒤집는 막대기 잡는 손도시려와서 승재는 난캐기를일단 중지했다. 새봄이 오면 다시 시작해야지.

봄의 난캐기의 묘미는아직 해보지는 못했지만 기가 막힐 것 같았다. 다른 풀은 다 말라죽어 있는데 거길 사알살 뒤지면 파아란 난초잎이 질퍽르게 돋아 있는 모양이란!

게다 다른 것들은 말라 죽어 있는데 난은 파아랗게 살아 있어서 눈에 잘 띈다. 그래서 찾아내기가 엄청나게 쉽다. 얼마나 신이 나겠는가. 한겨울을 죽어서 엎디어있어야지. 다른 거 누르고딴 생각은 안하는 듯이 지내야지.

그 무렵에 승재 신상에 변동이 생겼다. 된다된다하던 서울발령이 떨어진 것이다. 아이쿠우!

서울발령은 기다려 왔지만 큰일이었다. 기다릴 때가 좋았다. 막상 발령이떨어지니까 오로지 큰일이었다.

돈이 한푼도 없었다. 그 사정을 누가 알까. 아내나 아는 일이지. 주색에 빠져서 한푼도 돈을 저축하지 못했다. 남에게는 서울에집을 샀다고 둘러댔었는데…。

「서울에 집도 있겠다. 너 무넌부 좋겠어요.」

남들은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승재는 입을 크게 헤벌리며 대꾸했다.

「난을 실어가는게 큰일이예요.」

「실어갈 거예요?」

「가야지요.」

「얼지 않을까요?」

「그래서 문제지요.」

「승용차에 모셔가나?」

서울엔 맨주먹으로 올라가는데.

사택 윗집에서 난을 겨울 말아주마고 했다. 한 7만 5천원짜리를 어떻게 하고? 죽기나 하면어떻게 하고? 죽으나 사나 실어가야지.

그리하여 8톤 트럭 한 가운데 난을 모시고 승재네는 서울로 떠났다.

그들이 갈 수 있었던곳은 형님이 잡아둔 아파트였다. 집값이 오르면 팔생각으로 잡아둔 집인데 우선 그리로 들어가기로 했다.

그런데 그들이 8톤 트럭을 몰고 서울에 와서제일 먼저 해야 했던 것은 실고 온 짐을 버려야 하는 일이였다. 어떻게 되겠지 해서 싣고 왔는데 짐을 부리고 나니까 사람이 들어갈 곳이 없었다.

「버려요 버려. 모두 버려요.」

남들은 자꾸 버리랜다. 그렇지만 버릴게 있고 못버릴게 있지. 헌 달요는버려야 할 물건에 들겠지만 신혼때 쓰던 역사있는 물건인데.

「그럼, 짐은 모셔두고 사람은 서서 잘 거예요?」

똑똑한 형수가 그렇게말했는데 그 말투는 「허접쓰레기는 모셔두고…」 그렇게 들렸다.

그래, 팍 퍼져 사는 동안 허접쓰레기와 친숙해져버렸다. 그 허접쓰레기를이젠 잘라내야 할 때도 됐겠지.

그리하여 이불이 밖으로 도루 나가고 고들 소파도 쫓겨 나갔다. 지금까지는아끼는게 미덕이었는데 버리다 보니까 버리는게 훨씬 시원스러웠다.

「새집이 헌집된다고 자꾸 버리라는 거예요.」

아내는 그렇게 귀띔했지만.

「버려버려.」

승재는 버리는게 좋아졌다.

「다 돈인데요?」

「버려버려.」

「이이 봐. 다 돈이라니까요.」

「돈도 버려야 할 때는버려야 해.」

「누구처럼요?」

「그렇지.」

승재는 아차했다. 하다가 아내도 그 삼처는 빨리잊고 싶겠지만 뼈있는 말이 더러 튀어나왔다.

여름날에 소나기가 와서 초조해진 나머지 인생을덧없어 하다가 저축생활을적대시해버린 승재인데 아이고, 월급쟁이가 어디서 그런 무책임한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 주색으로 사나이가 액땜을 한번 하기는 했는데 동시에 주눅이 팍 들어 버렸다.

그걸 미처 모르고, 코앞에 닥쳐오는 현실을 계산 못하고, 현명한 사람은 앞일을 잘 예측한다는데 승재는 세치 앞도 내다보지 못했다. 이런 사나이와 살아주니 승재는 아내에게 저 자세가 되는 수밖에 없었다.

〈계속〉

母校소식

在學生 등록

2만8천4백명(99.4%)

지난 3월29일자로 마감된 재학생 등록현황이 밝혀졌다. 경리과에 의하면 총 등록대상자 2만8천6백43명중 2만8천4백75명(분납 2백17명포함)이 등록하여 99.4%의 등록률을 보였다.

올 卒業生 취업률 83.1%

작년보다 2·1포인트 떨어져

經營大學 1백%: 人氣學科 과시

금년도 모교 학부졸업생 취업률이 전년도의 85·2%보다 2·1포인트 떨어진 83·1%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4월1일을 현재로 하여 모교 직업보도실이 밝힌바에 따르면 전체 4천7백62명의 졸업생중 1천5백68명이 대학원진학, 혹은 해외유학을 하여 졸업후 진로방향으로 대학원 진학이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원 진학, 軍입대를 제외한 순수 취업생은 1천9백22명(40·4%)으로 오히려 지난해보다 3·5포인트 높아졌다.

기타 軍입대가 4백68명이며, 미취업자는 8백4명으로 16·1%를 차지하고 있다.

순수취업부문에서는 사원이 6백73명으로 가장많고 그다음으로는 의료원(3백47명), 교원(2백48명), 금융기관(1백3명), 연구기관(89명)의 순이다.

또한 성별로 보면 남자가 취업률 86·2%, 여자는 73·5%, 48·3%로 여자의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대학별로는 경영대학이 1백%의 취업률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의대(97·5%), 수의대(97·4%)순이며, 가장 낮은 대학은 68·2%의 취업률을 보인 사대로 나타났다.

대학별 취업상황은 별표와 같다.

大學別 就業 상황

大學	卒業生數	就業者	大學院進學	軍入隊	未就業者
人文大學	402	129	113	47	113
社會大學	559	143	163	85	168
自然大學	383	104	213	25	41
家政大學	128	64	36		28
經營大學	260	130	95	35	
工科大學	835	231	515	31	58
農科大學	485	181	126	87	91
美術大學	149	82	21	8	38
法科大學	282	180	61	16	25
師範大學	506	210	113	22	161
獸醫科大學	39	18	16	4	1
藥學大學	86	29	36	6	15
音樂大學	187	105	50	5	27
醫科大學	317	236	8	65	8
齒科大學	144	80	2	32	30
計	4,762	1,922	1,568	468	804

博士44%、碩士64%

論文資格試驗 합격률

지난 3월18일 실시된 89학년도 제1학기 석·박사 논문제출자격시험결과가 과목별 합격률은박사과정의 경우 영어 80·7%, 제2외국어 81·7%, 기초공통 85·8%로 전공 81·2%이며 석사과정은 영어 83·9%, 제2외국어 93·6%, 전공 86·3%로 나타났다. 전과목 합격률은 박사과정 44·0%, 석사과정 63·6%로 집계됐다.

學術研究費 지원 확정

총 3억 5천만원 규모

모교 연구처 연구비의 연구과제 신청중 최종 2천1백만원까지의 연구지원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대우학술연구비 3억을 포함하여 총3억5천만원의 연구비가 배정된 이번 학술연구비 지원은지난 1월12일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1월22일 대우학술연구비 관리위원회의 1차 심사를 거친후, 인문·사회과학·공학·농학·의치약학·예술·체육분야에 각각 배정되었다.

모교 연구처에서는 주년도분 지원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관하는 학술 89건의 연구과제 신청중 77건이 선정되어 과제별로 최고 2백만원에서 최고 2천1백만원까지의 연구지원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農·獸醫大移轉 함께 추진

농학캠퍼스 建設推委 원칙 합의

수원캠퍼스의 이전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구성된 농학캠퍼스건설추진위원회 3차 회의가 지난 3월29일 교수회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원캠퍼스가 모교 종합화계획의 차원에서 받드시이진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특히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농과대학과 수의과대학을 함께 관악캠퍼스 인근지역으로 이전하는 단일 이전계획안을 작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한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양창학·임승빈·한인규·한홍률·황기원 교수와 김동윤관재과장이 임명되었다.

한편 재원확보의 문제에 대해서는 수원캠퍼스의 부지를 매각하여 낙성대 후보지를 매입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는데, 이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이 자리에서권종국 수의과대학장은 이전계획과 때를 같이하여 수의과대학의 학제를 6년제로 개편하는 계획이 함께 수반되어야함을 설명했다.

「司法發展 연구과정」新設

法學硏究所 春·秋로 2개월씩 교육

모교 법과대학에 국내 최초로 「사법발전 연구과정」이 신설되었다.

법학연구소에서 추진, 설치한 이 연구과정은 행정대학원의 「발전정책 연구과정」, 경영대학의 「최고경영자 과정」 등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법조실무가와 법무담당행정공무원, 군법무관, 법학교수들의 공동연구와 공동토론으로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률적용, 집행과정및 법률이론을 연구하며 지난 4월17일부터공개강좌형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연구과정은 현직판·검사·변호사·군법무관·법제관·국회의원·법무담당 행정공무원·교수등을 대상으로 하고, 대법관·대법원판사·법무부장관·각부처실무자·교수·외국공관대사·공사·외국대학교수및 판·검사·변호사·국회의원들을 강사로 위촉, 봄·가을 두차례에 걸쳐 2개월씩 실시될 예정이다.

4월17일부터 6월17일까지, 주1회, 매주 월요일에 실시되는 이번 제1기 강좌에는 「사법제도개선방안」, 「법무부 행정개선방안」, 「헌법재판소제도의 개선방안」 등이 교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다.

박물관遺物展

박물관에서는 4월10일부터 5월6일까지 「한국고대문화 유물전」을 개최하고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고고학적 유물 3백여점 외에도 고서화류 50여점과 양주 산대가면 및 몽고오로촌의 민속유물들도새롭게 선보였다.

한편 박물관에서는 그동안의 발굴성과를 정리, 몽촌토성·오이도패총·석촌동 1·2호墳·오산리유적등에 관한 4권의책자도 발간했다.

大宇그룹 협조로

컴퓨터플라자 開館

지난 4월13일 공대컴퓨터공학과내에 대우그룹의 협조로 「대우컴퓨터플라자」가 개관 되었다.

컴퓨터및 관련응용분야의 학문발전에 중요한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되는 이 시설은 모교가 38동 408호와 421호의 장소를 제공하고 대우그룹이 3억7천여만원상당의 컴퓨터시설및 응용기를 무상대여하여설치된 것이다.

「컴퓨터플라자」의 내부시설로는 PC시스템실에 IBM호환기종인 AT와 XT가 각각 20대, 24핀 프린터 20대, 응용기기실에 로보트(NOVA-10),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X-Y테이블 등의 자동화기기가 각각 1대씩 준비된다.

이 시설은 모교생이면 누구든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연구수행중에 발생한 고장은대우측이 무상정비·보수해주기로 했다.

총학생회장에

문광명군 당선

모교 제32대 총학생회장·부회장에 기호1 문광명(노어노문학과·4년)한천희(도시공학과·4년)후보가 50·8%의 지지(투표율 59·5%)로 당선 되었다. 이에 의해 학생회는 지난 3월29일 총회를 갖고 본격적인활동에 들어갔다.

올림픽卓球경기장

학생에 전면개방

모교 체육관 시설이 전면 개방되어 앞으로는교직원과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올림픽이 치러진 이후 모교로 인계된 체육관 시설에 체육교육과동이 이전을 완료함에 따라 이번 달부터 가능하게 된 것이다.

체육관 개방시간은 평일에는 오후5시~8시까지이며 주말에는 오전9시~오후5시까지이다. 단, 평일의 경우에도 체육교육과의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鄭普燮교수 別世

鄭普燮교수(약학과)가지난 3월25일 약대동기회총회 석상에서 연설도중 지병인 고혈압으로 쓰러져 별세했다.(향년 61세)

경기도 평택에서 태어난 故 鄭普燮교수는 53년 모교 약학대학을 졸업한 후 모교 대학원에서 생약학을 전공, 56년 석사, 71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54년 이래 모교에서 봉직해왔다.